

淵蓋蘇文 서사의 형성과 전승 경로

—연개소문의 형상과 관련하여—

이승수*

〈차 례〉

1. 문제제기
2. 중화사관에 입각한 역사 기록
3. 역사 기록에 대한 회의와 이견
4. 역사 기록의 울을 넘다, 소설의 등장
5. 이야기 전승의 다른 경로, 설화
6. 조선 지식인의 연개소문 재인식
7. 맺음말

[국문초록]

연개소문은 7세기 중반 고구려 최고의 실력자로 동아시아 국제 정세를 이끌었던 역사 인물이지만 기록에서 그의 행적은 지극히 불완전하다. 연개소문에 대한 기록이 전적으로 전쟁 적국이었던 唐과 唐을 계승한 宋의 집권층에 의해 주도되었기 때문이다. 그 기록에서 연개소문의 삶은 대부분 결락되었고, 선택된 부분 역시 자국사 기술의 관점에 의해 왜곡될 수밖에 없었다. 오늘날 연개소문은 비정형적인 모습으로 불규칙하게 나타나는데, 이로 인해 우리의 연개소문 이해는 수시로 혼란에 빠진다. 이는 연개소문 관련 정보들이 이야기의 형성과 전승의 경로를 배제한 채 유통되기 때문이다. 이 논문은 연개소문 이야기의 형성과 전승의 경로를, 중화주의에 입각한 중국의 역사기록, 역사 기록에 대한 회의와 이견, 소설, 설화, 그리고 조선시대 지식인들의 관심 등 5갈래로 나누어 검토한 것이다. 현재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연개소문의 형상은 대개 이 다섯 경로를 통해 빚어진 것으로, 여기에는 한국의 인식과 중국의 인식, 고대의 인식과 근대의 인식, 그리고 역사와 문학과 설화의 인식이 복잡하게 뒤섞여 있다. 본고는 연개소문의 형상에 실타래처럼 복잡하게 얽혀있는 역사적 인연을 풀기 위해, 8세기부터 20세기 초에 이르는 시기 연개소문 전승의 형성과 경로를 정리해본

* 한양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부교수

것이다. 이 논의는 7세기 중반 고구려의 대당 전쟁을 주도했던 역사인물 연개소문이, 중국의 여러 층위 기록과 전승에서 어떻게 타자화되었으며, 다시 어떤 과정을 거쳐 한국사의 주역으로 귀환하였는지, 그 과정을 보여준다.

[주제어] 연개소문, 薛仁貴, 唐太宗, 연개소문 등장 중국 소설, 연개소문 등장 중국 설화

1. 문제제기

연개소문은 7세기 중반 고구려 최고의 실력자로 동아시아 국제 정세를 이끌었던 역사 인물이다. 하지만 태어난 해는 아예 알려지지 않고 죽은 해조차 논란이 많을 정도로 역사인물로서 그의 행적은 지극히 불완전하다. 죽은 직후 고구려가 멸망함으로써 연개소문은 자국사의 관점에서 기록될 기회를 잃어버렸으며, 삼국을 통일한 신라 또한 그에 대한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 연개소문에 대한 기록은 대부분 전쟁 적국이었던 唐과 唐을 계승한 宋의 집권층에 의해 주도되었다. 이들에게 있어 연개소문은 왕을 시해하고 唐의 제국주의 질서에 무모하게 도전하여 자국의 멸망을 초래했던 적국의 정치 지도자에 지나지 않았으며, 따라서 자국사 기술의 관점에서 필요한 부분만을 기록하였다. 그 기록에서 연개소문의 삶은 대부분이 결락됨은 물론이거니와, 선택된 부분 역시 그들의 관점에 의해 왜곡될 수밖에 없었다.

역사의 편향성은 전쟁사 기술에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전쟁에 대한 해석과 평가는 상대국의 입장이 상반됨은 물론이고, 한 나라 안에서도 지배계층과 피지배계층, 지배계층 내에서도 주류와 비주류의 이해관계가 엇갈린다. 상대국 비주류 사이의 연계나 피지배계층 사이의 공감도 배제할 수 없다. 전쟁 시기를 장악한 특정 권력과 이념의 금기가 해제되면, 다층의 관점과 해석이 나타나기 마련이다. 연개소문은 삶의 일부만이 전쟁 상대국에 의해 기록되었는데, 이는 그 삶의 대부분이 수수께끼로 남아있고 상황에 따라 다양한 억측과 해석이 시도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과연 기록 당사국인 중국에서 권력의 금제가

풀리면서 연개소문에 대한 다각적인 해석이 시도되었다. 권력층 내부에서도 입장에 따라 다른 의견이 제기되었고, 민간에서는 상상력을 발휘한 해석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이러한 해석들은 서로 넘나들고 만나면서 공식 역사서와는 다른 양상으로 표출되었으며, 야사·소설·설화·공연예술 등으로 전승 경로를 달리 잡아갔다.

한편 연개소문 이야기의 형성과 전승에는 담당 계층과 시대뿐만 아니라 민족의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 8~11세기 중국 역사 담론의 주요 등장인물이었던 연개소문은 그 이후 역사서에서 자취를 감추는 대신 다채로운 문학과 민간전승에서 활약하는 인물이 되었다. 이러한 무대의 전환은 잠복되어 있던 관점과 해석이 표면으로 드러났음을 의미한다. 한편 자국 인물에 대한 주체적인 기록과 평가의 기회를 갖지 못했던 고구려의 후에 국가에서는 갈수록 연개소문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특히 고대사를 재인식함으로써 민족·국가적 자아를 성찰하고자 했던 조선 후기 지식인들에 의해 연개소문은 빈번하게 호출되었으며, 그에 대한 새로운 평가가 시도되었다. 이 땅에서 연개소문은 조선조, 특히 17세기 이후에나 재조명된다. 하지만 자기 기록이나 전승이 빈약했던 탓에, 이 새로운 경향 역시 중국의 기록과 전승의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연개소문에게서 외부 세계와 경쟁하고 대결하는데 필요한 힘을 발견하려는 움직임은 일제강점기에 더 심화된다.

오늘날 연개소문은 비정형적인 모습으로 불규칙하게 나타나는데, 이로 인해 우리의 연개소문 이해는 수시로 혼란에 빠진다. 이는 연개소문 관련 정보들이 이야기의 형성과 전승의 경로를 배제한 채 유통되기 때문이다. 상상력과 흥미 위주의 대중문화도 이러한 혼란을 덧들이는 요인이다. 연개소문 이야기는 언제 어떻게 형성되어 어떤 경로로 전승되었는가? 역사 기록과 민간전승, 그리고 문학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으며, 이들은 각각 연개소문의 형상을 어떻게 빚어냈는가? 이러한 문제들은 기존의 역사학, 문학연구, 인류학(설화학) 등으로 분과된 학문 방법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우며, 제 영역을 넘나드는 통합적 관점의 수립을 요구한다. 이 글은 계보학의 방법으로 이 몇몇 문제에 대한 대답을 시도한 결과이다.

2. 중화사관에 입각한 역사 기록

639년 당태종 이세민은起居注를 맡은 褚遂良에게, 史錄에 오른 자신의 득실을 보아 경계로 삼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했다. 저수량은 제왕이 자신에 관한 사록을 본 전례가 없으며 완곡하게 거절했다. 하지만 이세민은 이듬해인 640년 房玄齡을 통해 기어이 사록을 열람하고 자신과 관련된 기록의 수정을 지시하였다.起居注는 당나라 시대의 사관이다. 저수량과 방현령은 모두 기거주의 임무가, 제왕이 보여주는 언행의 선악을 빠짐없이 기록하여 그로 하여금 법도에서 벗어나는 일을 하지 않도록 하는데 있다고 대답했다.¹⁾ 이 일화는 당나라 시대에 사관이 당대의 사실을 기록하는 제도가 충실하게 시행되고 있었음을 말해준다. 실존 인물 연개소문이 제일 처음 지면으로 옮겨진 것은 아마도 이 사록이었을 것이다. 연개소문 형상의 기원은 바로 이 당의 사록에 있다.

현재 이 사록은 남아있지 않으며,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그것을 근거로 지어진 문헌들이다. 남아있는 문헌을 기준으로 볼 때, 연개소문은 『貞觀政要』(8세기 전반)를 필두로 하여, 『通典』(801년), 『唐新語』(807년) 등의 저서에 단편적으로 등장한다. 등장 횟수는 많지 않으나, 당태종의 통치와 관련하여 연개소문의 출신과 영류왕 시해, 비범한 외모, 죽음과 고구려의 멸망 등이 압축적으로 소개되어 있다.²⁾ 연개소문은 당나라 멸망 후 편찬된 당나라 역사서 『舊唐書』(945), 『新唐書』(1060), 『資治通鑑』(1086), 그리고 역대 군신간의 행적을 집대성한 『冊府元龜』(1013)에 이르러 조금 더 자세하게 소개된다. 기술의 목적과 방식에 따라 내용이 조금씩 달라지기는 하지만, 연개소문에 대한 기사는 모두 대동소이한데, 이는

-
- 1) 방현령은 이세민의 지시에 따라 당시까지의 국사를 각각 20권의 편년체 『고조실록』과 『태종실록』으로 간추려 올렸다. 이 내용은 『貞觀政要』 권7에 보이며, 『唐新語』와 『舊唐書』 등에도 실려 있다.
 - 2) 『정관정요』의 경우는 당태종이 고구려 정벌을 계획하고 실천하는 643년부터 645년 사이의 기록에(권 8, 9), 『通典』에는 중국 변방의 국가들 중 高句麗 기사에 연개소문이 등장한다. (권 186, 「邊防 2, 東夷 下, 高句麗」) 『唐新語』에는 연개소문이 보낸 白金을 이세민이 받지 않은 사실이 실려 있다. (권 7, 「識量」 제 14)

이들 저술이 모두 당의 사록을 토대로 지어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들 저술 중 연개소문과 당시 역사에 대한 정보가 가장 풍부한 것은 歐陽修와 宋祁 등이 편찬한 『新唐書』와 司馬光이 편찬 책임을 담당한 『資治通鑑』이다. 26년의 시차를 두고 나온 두 사서의 가장 큰 차이는 기술체계이다. 紀傳體 사서인 『신당서』의 경우 연개소문은 열전(권 220, 열전 145, 「東夷, 高麗」)에 가장 많이 등장하고, 「唐太宗本紀」와 열전에 단편적으로 보인다. 체제상 연대와 날짜가 정확하게 기술되지 않은 곳이 많다. 또 당시의 정치상황을 입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각 편으로 분산된 내용들을 짜 맞춰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반면 편년체인 『자치통감』의 경우는, 사건의 시간적 흐름과 전체적인 양상 속에서 연개소문의 형상과 위상을 파악하기가 용이하다. 내용에 있어서는 약간의 출입과 疏密의 차이가 있는 정도이다. 이런 이유로 여기서는 초기 역사서에 그려진 연개소문의 형상을 파악함에 있어 『자치통감』을 주 텍스트로 삼고, 부분적으로 『신당서』 등 여타 문헌의 기록을 보조 자료로 활용하기로 한다.

『자치통감』에서 연개소문은 642년(정관 16년) 11월, 營州都督 張儉이 고구려의 정치 상황을 보고하는 가운데 처음으로 등장한다.

①신서(『신당서』)에 이르기를, 개소문은 蓋金이라고도 한다. 성은 泉이다. ②스스로 이르기를 물에서 태어났다고 하여 사람들을 현혹시켰다. (아버지 대대로가 죽자 개소문이 그 지위를 이어야 하는데 나라 사람들이 싫어하여 오르지 못했다. 사람들에게 머리를 조아려 자리에 오르게 해달라고 요청했으며, 옹지 못한 일이 있으면 폐위되어도 후회하지 않겠다고 했다. 사람들이 이를 불쌍히 여겨 자리를 이을 수 있었다.)³⁾ ③개소문은 흉포하여 법도를 지키지 않는 일이 많기에, 왕과 대신들이 의논하여 죽이려고 했다. 개소문은

3) 연개소문이 부친의 大大盧 직 계승 과정에 있어 그 잔인한 성격 때문에 우여곡절을 겪었음을 알려주는 ()안의 내용은 『신당서』에만 있는 것으로, 원문은 다음과 같다. “大人對盧死, 蓋蘇文當嗣, 國人惡之不得立. 頓首謝衆, 請攝職, 有不可, 雖廢無悔. 衆哀之, 遂嗣位.” (권 220, 「東夷, 高麗列傳」) 『삼국사기』의 「蓋蘇文傳」(권 49)은 이 기록을 따르고 있다. 大人對盧死, 蓋蘇文當嗣, 國人惡之不得立. 頓首謝衆, 請攝職, 有不可, 雖廢無悔. 衆哀之, 遂嗣位.

이를 눈치 채고 교열하는 것처럼 部の 군사를 모았다. 성 남쪽에 술과 음식을 가득 차려놓고 여러 대신들을 불러 함께 사열식을 보다가 모두 죽었으니, 죽은 자가 백 명이 넘었다. 그 길로 궁궐에 쳐들어가 직접 왕을 시해하고 여러 토막을 내어 도랑에 버렸다. 왕의 조카 藏을 세위 왕으로 삼고는 자신은 막리지가 되었다. 막리지는 중국의 이부 겸 병부상서와 같다. 이에 원근을 호령하며 나랏일을 마음대로 처리하였다. ④개소문은 체격이 크고 모습이 훌륭하며 의기가 거침없고 씩씩하다. 몸에 다섯 개의 칼을 차고 있으며, 주위 사람들은 감히 우러러 보지를 못했다. 말을 타고 내릴 때마다 귀인이나 무장으로 하여금 땅에 엎드리게 하여 밟았다. ⑤밖에 다닐 때는 대오가 정연한데, 길잡이가 길게 외치면 사람들은 구덩이나 골짜기를 가리지 않고 정신없이 달이나 길에 행인이 끊어졌으니, 나라 사람들이 매우 괴로워했다.4)

이 기록은 세부적인 정보는 충분치 않아도, 연개소문과 당대 정치 상황의 많은 부분을 추론하는 근거가 된다. ①에서는 그의 성씨를 문제 삼을 수 있는데, 모두 ‘泉’으로 되어 있는 중국 역사서의 기록과 달리 그 성이 ‘淵’이라는 학설은 일찍부터 주장되어 이제껏 통용되고 있어 본고에서는 이를 따르기로 한다.5) ②는 당시 연개소문 및 그 집안의 정치적 위상을 담고 있다. 이 구절에서 연개소문은 427년 평양천도 이후 평양을 거점으로 하여 중앙 정치세력으로 등장한 신진 귀족의 후예라는 사실이 추론되었다.6) ③은 연개소문과 영류왕 사이의 정치적 대립, 연개소문의 시역과 권력 장악, 연개소문의 치밀하고 잔인한 성격 등을

4) 『자치통감』 권 196, 「정관 16년 11월 丁巳」: “新書曰 蓋蘇文者 或號蓋金 姓泉氏 自云生水中以惑衆 蓋蘇文凶暴多不法, 其王及大臣議誅之. 蓋蘇文密知之, 悉集部兵若校閱者, 并盛陳酒饌于城南, 召諸大臣, 共臨視勒兵, 盡殺之. 死者百餘人, 因馳入宮, 手弑其王, 斷為數段, 棄溝中. 立王弟子藏為王, 自為莫離支, 其官如中國吏部兼兵部尚書也. 於是, 號令遠近, 專制國事. 蓋蘇文狀貌雄偉, 意氣豪逸, 身佩五刀, 左右莫敢仰視. 每上下馬, 常令貴人武將伏地, 而履之. 出行必整隊伍, 前導者長呼, 則人皆奔迸, 不避阨谷, 路絕行者, 國人甚苦之.”

5) 중국의 역사서는 연개소문을 泉蓋蘇文, 蓋蘇文, 莫離支 등으로 표기하고 있으며, 조선의 문헌 또한 대부분 이 표기를 따르고 있다. 원래 성인 淵이 泉으로 바뀐 경위에 대해서는, 이홍직, 「연개소문에 대한 약간의 存疑」, 『한국 고대사의 연구』, 신구문화사, 1987 참조.

6) 임기환, 「6,7세기 高句麗 정치세력의 동향」, 『한국고대사연구』 5, 한국고대사학회, 1992, 23면.

포괄적으로 보여준다. ④는 연개소문의 웅장한 외모와 넘치는 권위를, ⑤는 지나친 권위주의로 인한 민생의 고통을 암시한다. 이를 종합하면, 연개소문은 고구려의 신흥 귀족 세력의 일원으로 전략과 풍모가 뛰어났지만, 잔인하고 흉포하여 弑逆을 일으킨 것은 물론 민생을 고통스럽게 했다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 중 후자는 당나라가 전쟁을 일으키는 중요한 명분의 하나가 되었다.⁸⁾

하지만 연개소문의 弑逆은 고구려 내부의 문제이기 때문에 전쟁 도발의 결정적인 명분이 되기는 어려웠다. 당나라가 군대를 일으킨 결정적인 계기는 고구려가 唐 중심의 국제질서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인데, 그러한 고구려의 태도를 주도한 이가 연개소문이었다. 643년 9월 신라는 사신을 보내 고구려와 백제의 貢道 차단을 하소연하며 군사를 일으켜줄 것을 청했다. 이세민은 相里玄奘을 평양에 보내 신라를 공격하지 말 것을 설득했으나, 연개소문은 고토회복을 들어 당의 제안을 거절했다. 이듬해 2월 상리현장은 귀국하여 고구려의 태도를 보고했다. 이를 당제국 중심의 세계질서에 대한 명백한 도전으로 간주한 이세민은 전쟁을 결심하고, 10월 낙양에 행차하여 전쟁 준비를 지휘했고, 645년 1월 親征 불가 의견들을 물리치고 낙양을 출발한다. 이후의 唐軍이 안시성 전투에서 교착 상태에 빠져 9월에 철군하기까지의 과정은 여러 논의를 통해 잘 알려진 사실이다. 전쟁은 당나라의 실패로 끝났고, 연개소문은 더욱 자신감 있게 대당 강경 노선을 견지했다.

상께서 고구려에서 돌아온 뒤로 개소문은 더욱 교만방자하여, 사신을 보내 표를 올렸지만 그 내용은 모두 詭誕했다. 또 당나라의 사신을 대하는 태도도 거만하였으며, 늘 변방

-
- 7) 연개소문의 외모에 대한 묘사는 “鬚面甚偉，形體魁傑。”(『通典』), “貌魁秀，美鬚髯”(『신당서』), “狀貌雄偉，意氣豪逸”(『자치통감』)으로 문헌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그 의미 내포 사이에는 별 차이가 없다.
- 8) 이세민은 연개소문의 시역 소식을 접한 이후 빈번하게 고구려 정복의 적기임을 언급했는데, 물론 이는 대내외적 명분 쌓기로 의도된 것이다. 644년 2월의 다음 발언이 대표적인 보기이다. “蓋燕文陵上虐下，民延頸待救，此正高麗可亡之時也。議者紛紜，但不見此耳。”(『자치통감』 권 197, 貞觀 18년 2월 乙巳 조)

의 허점을 엿보았다. 여러 차례 칙령으로 신라를 공격하지 말라고 했지만 침략과 능멸을 그치지 않았다.⁹⁾

연개소문이 대당 강경책만을 고수한 것은 아니다. 보장왕과 연개소문은 646년 5월 사신과 두 미녀를 보내 사죄했는데, 이세민은 친척과 헤어진 여인들의 아픈 마음을 헤아려 두 미녀를 돌려보냈다고 한다. 이 기록은 『신당서』와 『자치통감』에 모두 실려 있다. 연개소문은 전쟁 발발 전인 644년 8월에도 白金을 선물로 보냈다가 거절당한 바 있다. 하지만 이는 전쟁 전후는 물론 전쟁 중에도 사신을 끊지 않는 외교의 공식일 뿐이다. 연개소문은 선린우호를 표방하였지만, 실제로는 위 기사의 내용처럼 강경(또는 주권) 외교를 포기하지 않았다. 『신당서』는 646년의 미녀 사건 기사 아래, 당군이 요동에서 철수할 때 이세민이 선물한 弓服을 받고도 연개소문이 사례하지 않았다고 하여 조공을 폐하도록 했음을 부가 기술했다.¹⁰⁾ 이세민의 弓服 선물은, 퇴각할 때 안시성주에게 비단을 하사하고 안시성주는 성 위에 올라 이세민을 배례 전송했다는 기사와 마찬가지로, 손상된 당(태종)의 위엄을 가리기 위한 허식으로 들린다. 사실이라면 연개소문은 이세민의 국제적 체면조차도 배려하지 않을 정도로 거만했던 것이 된다.

645년 요동 일대를 휩쓸었던 1차 高唐戰爭은 당나라의 철군으로 막을 내렸다. 그 이후로 두 나라 사이에 대규모 군사 충돌은 없었으며, 연개소문의 대내외적 위상도 큰 변동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666년 연개소문이 죽고 세 아들 사이에 권력 다툼이 일어나자 고구려의 방어력은 급격히 와해되었으며, 결국 668년 멸망하고 만다. 고구려를 멸망시킨 주요 세력은 당나라였고, 당나라와의 강경 대결을 주도한 사람은 연개소문이었으며, 고구려 멸망의 내적 계기는 연개소문의 죽음과 아들 사이의 내분이었다. 고구려의 멸망은, 고구려의 권력을

9) 『자치통감』 권 199, 정관 20년 (646) 9월조: “上自高麗還, 蓋蘇文益驕恣, 雖遣使奉表, 其言率皆詭誕. 又待唐使者倨慢, 常窺伺邊隙. 屢勅令勿攻新羅, 而侵陵不止.”

10) 『신당서』 권 220, 『동이열전, 고려』: “初師還, 帝以弓服賜蓋蘇文, 受之, 不遣使者謝. 於是下詔削棄朝貢.”

장악하고 對唐 강경노선을 주도했던 연개소문에 대한 당나라의 평가에 있어 치명적으로 작용했고, 아울러 내부 평가와 기록의 기회를 원천적으로 앗아버렸다. 唐宋의 역사기록을 종합하면, 연개소문은 국내적으로는 君臣 간 강상을 파괴한 亂臣賊子이고, 국제적으로는 華夷 질서에 정면으로 도전한 無道戎狄이며, 끝내는 무모한 전쟁으로 敗家亡國을 부른 원흉이 된다. 이 세 가지가 곧 중화주의 사관으로 그려진 연개소문의 형상이다.

당송 시기의 역사기록은 이후 막강한 권위를 지니고 영향력을 행사했다. 『신당서』와 『자치통감』 등은 중국은 물론이고 고려와 조선에서도 주요 학습 역사서였기 때문이다. 군주를 시해하고 천자국에 도전함으로써 결국은 나라를 망하게 한 연개소문의 형상은 무비판적인 독서를 통해, 거듭 확대·재생산되었다. 河崙(1347~1416)은 지인에게 주는 시의 서문에서, “개소문은 凶逆을 행하여 隋唐의 군사를 불러왔다. 개소문이 죽자 두 아들이 권력을 다투어 나라도 이어서 멸망했다.”¹¹⁾고 했다. 崔溥(1454~1504)는 “연개소문은 시역의 죄를 저지르고 천자의 사신을 모욕하였으니, 그 죄악이 천하고금에 유례 없는 亂臣賊子”라며, 연개소문을 비범한 사람이라 했던 王安石까지 싸잡아 춘추의 도의를 모르는 사람으로 매도했다.¹²⁾ 周世鵬(1495~1554) 또한 서경에 부임하는 사람에게 준 시에서, 악업을 쌓고 작은 성에 기대 천자에 저항하였으니, 멸망을 재촉한 줄도 모르고 교만했던 사람이라며 연개소문을 비웃었다.¹³⁾

세 사람의 태도는 몇 예에 지나지 않는다. 조선 전기 지식인들은 중국 역사서

11) 하륜, 『浩亭集』 권 2, 『送西北面都巡問使平壤尹趙公詩序』: “蓋蘇文作凶逆以召隋, 唐之兵, 蘇文死, 二子爭權, 國隨以滅.”

12) 최부, 『錦南集』 권 1, 『東國通鑑論, 高句麗泉蓋蘇文死』: “太宗將伐高句麗 聲蘇文弑逆之罪 蘇文囚天子使 侮慢不恭 其罪惡 天下古今之所無 雖三尺童子 皆知兇逆而唾罵之 柰何王安石 對神宗之問曰 太宗之不克高麗 以蘇文非常人也 以如是亂賊之魁 謂非常人 則天下古今亂臣賊子 孰非非常之人乎 安石 心術不正 而學術亦不正 春秋 經世之大典 尤謹嚴於誅亂討賊之義 而安石以謂斷爛朝報 請於經筵不得進講 蓋不知春秋誅討之義 故其發於議論 告諸人主者如是 富軾 吾東方名士 於蘇文大逆不道之罪 知之詳矣 雷同安石謬說 謂之才士 何也 其亦不免爲人臣不知春秋之罪矣”

13) 주세붕, 『무릉잡고』 권 1, 『送許磁之以咨文點馬之西京』: “……可笑蓋蘇文, 積惡不自懲. 孤城抗萬乘, 促滅反驕矜. 顛覆其宗社, 糜爛其黎蒸. ……”

에 묘사된 연개소문의 형상을 넘어서는 이해를 보여주지 못했다. 또 이러한 태도는 조선후기라고 해서 불식된 것은 아니었다. 그 권위에 위축되어 역사 기록을 무비판적으로 읽을 때, 또 君臣과 華夷 간의 춘추의리가 절대적으로 존송되는 분위기 속에서, 연개소문은 弑君謀逆의 난신적자로 받아들여졌다. 이러한 인식은 중화주의 역사관에 토대를 둔 당나라 실록에서 처음으로 체계화되었으며, 이는 절대적인 권위를 업고 뒷시대에 영향력을 행사했다.

3. 역사 기록에 대한 회의와 이견

이세민은 644년 11월에 이르러서야 군사를 출동시키지만, 고구려와의 전쟁을 위한 그의 계획은 장기적으로 치밀하게 준비되었으며 그 태도는 집요했다. 당은 631년에 이미 사신을 보내 고구려와의 전쟁에서 죽은 隋나라 군사들을 위해 제사를 지내주었고, 고구려의 전승 기념물인 京觀을 파괴했다. 고구려에서는 친리장성을 축조하여 미구에 있을 전쟁을 준비했다.¹⁴⁾ 641년 7월에는 職方郎中 陳大德을 파견하여 고구려의 산천지형 및 정치·군사의 허실을 탐지하게 했다.¹⁵⁾ 644년 7월에는 군함을 건조하고 군량미를 비축하여 운반한 뒤, 선제 타격으로 고구려의 반응을 살폈다. 이세민은 장기적으로 전쟁을 준비하며 때를 기다렸던 것이다.

이세민은 장기적인 계획 아래 전쟁을 준비하면서, 이 전쟁이 군주의 독단으로 벌이는 것이 아니라는 명분을 내세워 반대 여론을 차단했다. 641년 고구려에서 귀국한 陳大德은 고구려에 남아있는 隋나라 유민의 참상을 보고했으며,¹⁶⁾

14) 『신당서』 권 220, 『동이열전, 고려전』.

15) 여기에 대해서는 방항숙, 『7세기 중엽 唐太宗의 對高句麗戰 전략 수립과정』, 『중국고중세사연구』 19, 중국고중세사학회, 2008, 320~325면 참조.

16) 『자치통감』 권 196, 8월 己亥 조: “遊歷無所不至. 徃徃見中國人自云家在某郡, 隋末從軍, 沒於高麗, 高麗妻以遊女, 與高麗錯居, 殆將半矣. 因問親戚存沒. 大德給之曰, 皆無恙咸, 涕泣相告, 數日後隋人望之而哭者, 徧於郊野.”

이세민은 수시로 요동이 수복해야 할 중국의 고토임을 강조했다.¹⁷⁾ 민족정서를 내세워 실지회복론을 주장한 것이다. 645년 1월에는 장안의 통치를 房玄齡에게 일임하며 일체 사무를 보고하지 말도록 지시했고, 5월에는 遼河를 건너며 다리를 철거하였다. 결연합의 표시였다. 이 외에도 이세민은 병든 군사를 어전에 불러 위로하고, 전투 중에 부상을 입은 장수의 상처를 입으로 빨아주며, 직접 전투에 참여하여 흠집을 나르는 등 軍心을 얻기 위한 어떤 노력도 마다하지 않았다. 또 투항한 고구려의 군사들을 돌려보내는 등 仁愛君主의 위상을 세우기 위해 부실했다.

644년 11월 幽州에서 이세민은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다섯 가지로 제시했다.¹⁸⁾ 하지만 그의 장담에도 불구하고 전쟁은 실패로 끝이 났다. 당군은 9월 18일 철군을 시작했고, 遼水와 渤鍇水를 건널 때 심각한 고초를 겪었으며, 10월 薊州에 이르러서는 전물 장졸들을 위해 제사를 지냈는데 곡을 하며 애도를 다했다고 한다. 이세민은 646년 3월이 되어서야 장안에 도착했다. 같은 해 윤 3월에는 그나마 함락시켜 행정체계에 편입시켰던 遼州와 巖州도 폐기했으니, 정상적인 관리가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신당서』와 『자치통감』은 공히 당군의 전과에 비해 피해를 미미하게 기술하고 있다.¹⁹⁾ 하지만 646년 3월 장안에 도착한 이세민은 李靖에게 이렇게 물었다.

내가 천하의 많은 병력으로 작은 오랑캐에게 곤란을 겪은 이유가 무엇이요?²⁰⁾

17) 위와 같은 곳 : “上曰, 高麗本四郡地耳. …….”; 645년 1월 낙양에서는 “上謂侍臣曰, 遼東本中國之地. …….”; 『신당서』 「고려전」에는 “於是帝欲自將討之, 召長安耆老勞曰, 遼東古中國地…….”

18) 『자치통감』 권 197, 정관 18년 11월 경자 : “今略言必勝之道有五, 一曰以大擊小, 二曰以順討逆, 三曰以治乘亂, 四曰以逸待勞, 五曰以悅當怨, 何憂不克. 布告元元, 勿為疑懼.”

19) 『신당서』, 「고려전」에서는, 출발한 육군 10만과 수군 7만 중에 전사자는 각각 천여 명과 수백 명이라고 했으며, 『자치통감』 645년 10월 丙申 조에서는 참수한 고구려 병사가 4만임에 비해 자국 전사자는 2천 명 정도라고 했다.

20) 『자치통감』 권 199, 정관 20년 3월 己巳 조 : “吾以天下之衆, 困於小夷, 何也.”

이세민은 실패를 자인했던 것이다. 설사 당군의 피해가 기록처럼 미미했다 하더라도, 오랫동안 기울인 노력과 수많은 인력·물력을 감안하면 실패한 전쟁이었다.

역사기록이 온갖 수사와 장치를 동원해서 아무리 은폐하려 했어도, 실패라는 사실 자체를 다 감출 수는 없었다. 전쟁 실패에 대한 인식은 당대에 이미 주류 담론의 틈새에서 발생했던 것으로 보인다. 魏徵(580~643)과 관련된 일화는 그 중 한 보기이다. 위징은 직간으로 태종을 보필했던 측신이었다. 643년 위징이 죽자, 태종은 친히 제문을 짓고 비석 글씨를 쓰고는, 자신의 득실을 비취볼 수 있는 거울을 잃었다 탄식했다. 하지만 7월 위징이 천거한 인사들이 잇달아 역모와 무능으로 탄핵되자, 위징이 개인 당파를 세웠다고 의심하여 비석을 쓰러뜨리게 했다. 고구려와의 전쟁에서 군대를 돌이켜 요수를 건넌 이세민은 “만약 위징이 있었다면 나로 하여금 이 전쟁을 하지 못하게 했을 것이다.”고 탄식했다고 한다. 이 말은 8세기 전반에 劉餗이 편찬한 야사집 『隋唐嘉話』에 처음 보이며,²¹⁾ 『신당서』(권 97, 「위징열전」)와 『자치통감』에 그대로 수록되었다.

이 일화는 이후 당나라가 전쟁에서 실패한 논거로 널리 인구에 회자되었다. 1386년 남경 사행을 마치고 돌아오던 정몽주는 蓋州를 지나며 「安市城懷古」란 시를 지었다. 645년 안시성 싸움을 회고한 것이다. 여기서 정몽주는 당태종을 힘자랑이나 하려고 우쭐대다가 비웃음의 대상이 된 馮婦에 견주며 조롱했다.²²⁾ 1735년 건륭제 즉위년에 동지부사로 압록강을 건넌 李德壽는 봉황산성을 지나며, 군사를 돌이키며 시름에 겨워 위징을 비석을 다시 세우게 한 이세민의 고사를 떠올렸다.²³⁾ (이 시기 많은 사람들이 압록강 북변의 봉황산성을 안시성으로

21) 『隋唐嘉話』 권 상, 제 36칙 : “若魏徵在, 不使我有此舉也.” 劉餗의 생애와 『수당가화』의 제 특징에 대해서는 최미진, 「隋唐嘉話의 文獻의 價値 및 校釋」,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8 참조. 이 논문에는 『수당가화』의 원문 및 역주도 실려 있다.

22) 정몽주, 『圃隱集』 권 1, 「安市城懷古」 : “黃金殿上坐垂衣, 百戰雄心不自持. 想見太宗親駕日, 宛如馮婦下車時.”

23) 이덕수, 『西堂私載』 권 2, 「安市城」 : “鄭公墓草欲披離, 安市城邊戰角悲. 生前幾許爭力, 只博軍回豎踏碑.”

오인했다.) 이러한 인식은 비단 조선의 문사들에게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건륭제는 1774년 薊縣에 있는 盤山行宮에 행차했을 때, 당태종이 갑옷을 말렸다는 瞭甲石에서 그의 경박한 거조와 실패를 읊조렸다.²⁴⁾ 내용은 조금씩 달라도 이들의 생각은 모두 당태종의 실패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그 실패를 나타내는 가장 유력한 표지는 위징과 관련된 일화였다.

당태종의 성공이 과도하게 포장될수록 그 맞은편에 있었던 연개소문에 대한 평가는 하락할 수밖에 없었다. 반면 당태종의 실패가 부각될수록 연개소문의 반등 폭은 커질 소지가 있었다. 그러한 인식의 단초를 처음으로 보여준 사람은 북송의 張耒(1054~1114)이다. 소동과 문하의 4학사 중 하나인 장뢰는 『趙充國論』을 지어 병법에 있어 觀時의 중요성을 말한 바 있다. 조충국은 기원전 61년 한 나라에 반기를 든 羌族 정벌에 나서, 속전속결을 원하는 조정의 뜻을 거스르며 시간을 충분히 두고 屯田을 경영하며 적들의 연합을 와해시켜 스스로 무너지게 하는 전략으로 큰 승리를 거둔 인물이다. 장뢰는 이 글의 말미에서 당태종이 돌궐과의 전쟁에서는 때를 잘 살펴 승리를 거두었음에 반해 고구려와의 전쟁에서 실패한 이유를 이렇게 말했다.

그 뒤 태종은 온 국력을 기울여 고구려를 취하려 했지만, 용맹한 장수와 병졸들이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견고한 성에 막혀 머뭇거리다가 물러난 것은 어째서인가? 개소문은 영웅이었지만 이미 망해버린 나라로 간주함이 지나쳤던 것이다. 고종 때에는 개소문이 죽었으니, 李勣 한 사람만으로도 취하기에 충분했다. 이적의 재주가 어찌 태종을 능가했겠는가? 상대방의 때가 달랐던 것이다.²⁵⁾

24) 『欽定御製詩集』 권 20, 『題唐太宗瞭甲石』: “蓋蘇文叛事親征, 瞭甲因傳此石名. 創業守成殊理道, — 太宗開創主也, 天下既定, 斯為守成之君, 以海外叛蠻而事親征, 失輕重矣. — 拒人矜已失權衡. 魏徵已仆填國碼, 仁貴徒攻安山城. 權盡師班深自悔, 慎終惟始猶猶明.”

25) 『柯山集』 권 8, 『趙充國論』: “其後太宗舉國以取高麗, 猛將銳卒, 自以無前, 而頓兵堅城, 逡巡而退, 何則? 蓋蘇文之雄, 而欲以亡國處之過矣. 高宗之時, 蓋蘇文既死, 則用一李勣取之而有餘, 夫勣之才, 豈過太宗哉? 敵之時, 異也.” / 蘇門六君子文粹, 권 8, 宛丘文粹(張耒),

연개소문은 당태종을 설명하는 자리의 빈객으로 설정된 것에 지나지 않지만, 장되는 당태종의 실패 원인이 연개소문의 능력에 있다고 명시했다. 당의 대군을 맞아 패퇴시킨, 당태종의 야욕을 꺾은 적국의 지도자이자 장수로서 연개소문에 대한 인식은 당대에도 있었을 것이라고 짐작되지만, 그러한 인식이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 공시되되는 데는 여러 가지 금기가 작용했을 것이다. 위 글도 조충국과 당태종을 이야기는 가운데 부수적으로 그 시기 연개소문에 대한 비공식적인 평가가 얼비쳐진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연개소문에 대한 세간의 평을 가늠케 하고, 나아가 연개소문을 더 적극적으로 형상화한 소설, 설화와 공식 역사기록 사이의 접점이 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부여할 수 있다.

이러한 분위기는 1145년에 간행된 『삼국사기』에서도 간취할 수 있다. 『삼국사기』에서 연개소문은 「고구려본기」와 「열전」에 집중적으로 등장한다. 『삼국사기』의 연개소문 관련 기록은 대부분 신구 『당서』와 『자치통감』의 기사를 취합해서 엮은 것이기에²⁶⁾ 중화사관이 여과 없이 노출되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고구려를 자국사의 관점에서 기술했던 점들이 보인다. 『삼국사기』에는 중국의 세 사서에는 보이지 않는 몇몇 구절이 눈에 띈다. 가령 649년 당태종의 죽음을 거론하며, “당태종이 붕어하면서 유언으로 요동 전역을 그만두라는 조서를 남겼다.”²⁷⁾고 했다. 하지만 이는 “마침 황제가 붕어하여 (전쟁 준비를) 모두 그만두었다.”²⁸⁾고 한 『신당서』의 기록이나, 고종이 즉위하면서 “한시적으로 요동 전역을 그만두었다.”²⁹⁾고 한 『자치통감』의 기록과는 미묘한 차이를 보인다. 중국의 사서 어디에도 당태종이 고구려와의 전쟁을 그만두라고 유언을 남겼다는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

당태종의 죽음을 언급한 기사 아래 특별히 논평을 달았는데, 여기서 柳公權

26) 이흥직, 앞의 논문, 287쪽.

27) 『삼국사기』 권 22, 「고구려본기 제 10, 보장왕 하」, 8년 : “夏四月, “唐太宗崩, 遺詔罷遼東之役.”

28) 『신당서』 권 220, 「동이열전, 고려전」 : “會帝崩, 乃皆罷.”

29) 『자치통감』 권 200, 정관 23년(649) 4월 壬申 : “限罷遼東之役.”

(778~865)의 소설을 인용하여 “주필산 전투에서 고구려와 말갈의 연합군이 사방 40리에 늘어서 있자 태종이 이를 바라보고 두려운 빛을 띠었다.”고 했다. 또 “六軍이 고구려의 기세에 눌려 거의 떨치지지를 못했다. 英公(李勣)의 黑旗가 포위 당했다는 척후병의 보고에 황제가 크게 두려워했다.”는 구절을 인용하며, “결국 몸을 빼내기는 했지만 위태롭고 두렵기가 저와 같았는데도 친구 『당서』 및 『자치통감』에서 언급하지 않음은 나라를 위해 숨긴 것이 아니겠는가?”라며 의문을 달았다.³⁰⁾ 김부식은 중국 역사 기록의 허점을 간과하였지만, 대안으로 삼을 만한 기록이 없었기 때문에 부득이 소설의 내용을 보조 자료로 삼아 문제를 제기했던 것이다. 뒤에 다시 살펴보겠지만 당나라 때부터 지어진 소설은 연개소문의 형상을 재정립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김부식은 『개소문전』을 따로 세우고 이렇게 말했다.

송나라 신종이 왕안석과 옛일을 논하다가 말했다. “태종이 고구려를 정벌했을 때 무엇 때문에 이기지 못한 것이오?” 왕안석이 말했다. “개소문은 예사로운 사람이 아닙니다.”³¹⁾

또한 중국 쪽의 기록을 인용한 것이다. 신종과 왕안석은 고당전쟁을 화제로 이야기를 나누었고, 왕안석은 당태종의 실패를 연개소문의 비범한 능력에서 찾았다. 이 기록의 출처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는데, 공식 역사가가 아닌 재야 지식인의 야사일 가능성이 높으며, 소설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부식은 부득이 중국 사서의 기록을 轉載하면서도, 심정적으로 고구려 편에 서서 연개소문에 대한 유리한 언급을 역사 기록에 끌어들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연개소문에 대한 적극적 평가 태도는 앞의 당태종의 실패를 주목하는 태도와 짝을 이룬다. 김

30) 『삼국사기』 위와 같은 곳 : “史論曰, 好大喜功, 勒共於遠者, 非此之謂乎. 柳公權小說曰, 駐蹕之役, 高句麗與靺鞨合軍方四十里, 太宗望之有懼色. 又曰, 六軍爲高句麗所乘, 殆將不振, 候者告英公之麾黑旗被圍, 帝大恐, 雖終於自脫, 而危懼如彼. 而新舊書及司馬公通鑑不言者, 豈非爲國諱之者乎.”

31) 『삼국사기』 권 49, 『개소문전』 : “宋神宗與王介甫論事曰, 太宗伐高句麗, 何以不克. 介甫曰, 蓋蘇文非常人也.”

부식의 기록은 모두 중국 문헌을 인용하는 형식을 띠고 있으니, 이러한 인식은 기실 고려가 아닌 중국에서 발생한 것이다. 철저하게 중국과 신라 중심의 역사 기술을 고수했던 김부식도 고구려/당의 전투에 있어서는 고구려군을 일관되게 ‘我軍’으로 표현했으나, 이념적 입장과 심정적(관습적) 입장 사이에는 미묘한 틈이 있었다. 연개소문에 대한 일말의 호의 또한 그러한 틈에서 발생했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중화사관에 입각한 역사 기록은 당태종과 연개소문을 공전절후의 영명한 군주 / 패륜무도한 용적의 장수로 뚜렷하게 대비시키려고 했다. 하지만 이러한 구도에 대한 의문은 8세기 전반부터 이미 제기되었으며, 시대가 흘러가면서 일부 역전된 인식도 나타나기 시작했다. 연개소문에게는 단편적이거나 당나라의 대군을 격퇴하고 고구려의 자존심을 지킨 국가 지도자의 면모가 새롭게 부여된 것이다. 새로운 해석은 역사 기록과 실상 사이의 불일치와 거리에서 나온 것이다. 불일치의 정도가 심하고 거리의 편폭이 클수록 실상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나 상상이 가해질 가능성이 높다.

4. 역사 기록의 울을 넘다, 소설의 등장

대규모 전쟁은 언제나 역사 기술의 중심을 차지한다. 군사혁명으로 정권을 잡고 이민족과의 빈번한 대결을 통해 국가 세력을 확장시킨 당태종 집권기는 전쟁의 연속이었다. 그중에서도 고구려와의 전쟁은 규모가 가장 컸음에 반해, 당나라는 물론이요 태종의 체면에도 작지 않은 오점을 남긴 전쟁이었다. 승리로 포장하기에는 해명되지 않는 의문들이 많았고, 결정적으로 태종의 생존 기간 고구려와 연개소문은 건재하였다. 당 초기 역사 기록에서 고당전쟁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또 정사에 반하는 해석이 부단히 제기되어온 이유이다. 하지만 역사 기록에 대한 반성적 검토는 매우 소극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역사 기록이 지녔던 권위, 기록과 사실 사이의 일치 여부를 의심하지 않았던 관념, 그리고

중국의 공식 역사 기록에 대항할 만한 여타의 기록이 존재하지 않았던 사정 등이 고루 작용했던 때문이다.

한편 전쟁은 문학의 입장에서든 매우 흥미로운 소재이다. 인간사의 갈등과 대립이 극단적으로 표출되는 사건이라는 점에서 전쟁은 서사의 본질과 부합하고, 영웅 탄생의 조건이라는 점에서 영웅서사를 위한 더없는 호재가 된다. 또 전쟁은 두고두고 회고와 반성의 대상이 된다. 8세기 무렵부터 단편 야사의 소재로 차용되었던 645년 고구려와 당나라의 전쟁은, 이후 민간의 수요에 부응하면서 13세기 중반 무렵부터 소설로 거듭나기 시작한다. 이는 역사서사에서 허구 서사가 파생되어 독립하여가는, 중국 歷史演義 전통의 흐름 속에 놓여있다. 이들 소설은 역사기록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그로부터 완전하게 자유로울 수는 없다. 하지만 소설은 사실을 표방하지 않고, 국가 기관의 통제를 받지도 않았으며, 저자의 익명성이 보장되었다. 더구나 소설의 수용층은 역사기록의 독자층과 일치하지 않았고 그 세계관에도 차이가 있었다. 이런 이유로 소설은 정사의 권위로부터 자유롭고 적극적으로 원심력을 행사하며, 역사 기록과는 다른 경로로 전승되었다. 연개소문은 당태종 시기의 역사를 부연한 몇몇 소설 속에 주요 배역으로 등장한다.

역사가들은 사료의 취사선택, 사건의 은폐와 확대, 사안에 대한 해석, 그리고 서술의 방식 등에 있어 특별한 권능으로 역사상을 구성한다. 역사 기술이 허구의 속성을 지닌은 오래 전부터 인정되어온 명제이며,³²⁾ 현대 역사학은 치밀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그 명제를 입증하였다.³³⁾ 이는 역사기술의 서사성으로 정리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기록/사실의 일치를 의심하지 않았던 오랜 관념에 대한

32) 서양의 경우는 김동진, 「내러티브적 역사서술의 흐름」, 『靑藍史學 7』, 청람사학회, 2003, 142·143면을, 동양의 경우는 루샤오펑 / 조미원 외 옮김, 『역사에서 허구로』, 길, 2001의 75~93면 참조.

33) 여기에 대해서는 김동진, 앞의 논문 외에 김운찬, 「역사와 허구 사이 : 에코의 역사 읽기」, 『이탈리아어문학』 14, 한국이탈리아어문학회, 2004; 하상복, 「닥터로우의 역사와 문학의 경계 공간」, 『현대영미소설』 11권 2호, 한국현대영미소설학회, 2004; 이도흠, 「기억, 흔적 그리고 기호 - 역사 현실의 기억과 흔적의 텍스트화 및 해석」, 『기호학연구』 19, 한국기호학회, 2006을 참조.

도전으로서 역사기술의 허구적 속성을 밝혀낸 것이지, 허구를 역사기술의 본질이라고 주장한 것은 아니다. 역사는 여전히 사실을 표방하며, 사실성의 정도에 따라 그 권위가 결정된다. 역사가는 일일이 다 재현할 수 없는 세부 사안이나, 확인할 수 없는 정황에 대한 기술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 사실성이란 기준은 사가의 주관적 상상력의 발동을 견제한다. 지배 체제의 유지와 정당성을 기도하는 권력의 도덕률 또한 史筆의 활동 반경을 제한한다.

이러한 역사기록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수준 이상의 고급 지식, 지배 체제의 도덕률에 동의하는 세계관의 공통 기반 등이 전제된다. 역사 기술은 지식과 세계관의 공통분모 위에서 수용되고 재생산되는 것인데, 그것은 사회의 극히 일부 계층에서만 가능할 뿐이다. 하지만 역사에 대한 관심이 그 계층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재야 지식인이나 기층의 민중 등 더 많은 사회 구성원들을 위한 역사 지식의 구성과 생산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야담(야사)·소설·전설 등의 탄생에는 역사 이해에 대한 재야의 욕구가 주요 동력으로 작용하는데, 그중에서도 중국소설의 본류를 이루는 歷史演義는 가장 대표적인 경우라 할 것이다. 당태종 치세의 역사는 그 역동성과 성취로 인해 여러 演義小說로 지어졌다. 이들 작품에서 연개소문은 주요 배역으로 등장하는데, 그 형상의 많은 부분은 역사 기술의 울을 넘어서는 상상력의 힘으로 빚어진 것이다. 여기서는 이들 소설에 등장하는 연개소문의 형상과 그 제반 의의를 검토하려고 한다. 분석할 텍스트는 각각 元, 明, 淸 시기에 출현한 『薛仁貴征遼事略』, 『唐書志傳通俗演義』, 『說唐後傳』 세 편이다.

송말원초에 형성된 『薛仁貴征遼事略』은 평민 출신 薛仁貴가 온갖 장애와 난관을 극복하고 공명을 드날리는 영웅서사를 담은 講史話本이다.³⁴⁾ 서사는 거의 모두 설인귀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초반의 서사 갈등은 두 흐름으로 구성된다. 하

34) 이 작품의 내용과 구성상의 여러 특징, 역사기록과의 관계와 연개소문의 형상 등에 대해서는 박재연, 『薛仁貴征遼事略 小考』, 『중국학연구』 1, 한국의국어대학교 중국학연구소, 1984 참조. 한편 박재연은 『중국소설연구회보』 8~11(1991.11~1992.9)에 이 작품의 해제 및 번역문을 분재하였다. 원문 텍스트로는 『古本小說集成』(중국 상해 : 上海古籍, 1994) 제 426책을 이용하였다.

나는 ‘고구려/당’의 국제적 대립구도를 배경으로 하는 ‘당태종 / 연개소문(葛蘇文)’의 갈등이고, 다른 하나는 ‘설인귀 / 張士貴’의 국내 계급 갈등이다. 연개소문은 唐 중심의 국제질서를 어지럽히는 악의 축으로, 장사귀는 嫉賢妬能하는 악질 고위 관료의 전형으로 설정된다. 연개소문은 뛰어난 무용과 군사력으로 당태종을 계속 위협에 빠트리고, 장사귀는 설인귀의 공적을 계속해서 가로채고 그 사실이 밝혀질까 두려워 집요하게 그를 죽이려 한다. 두 개의 대결 축은 후반으로 갈수록 설인귀를 중심으로 하는 하나의 대결로 모아진다. 설인귀는 집요하게 자신을 해치려는 장사귀의 음모를 극복하고, 나아가 천자를 위협하는 강력한 외적 연개소문을 물리침으로써 영웅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장사귀의 모해가 집요하고 치밀할수록, 연개소문의 위력이 강할수록, 이 모든 것을 극복한 설인귀의 영웅 속성은 강화된다.

연개소문은 이야기 첫머리에 등장한다. 그는 644년 당나라에 가는 백제 사신의 공물을 탈취하고, 昌黑飛의 이마에 “殺兄前殿，囚父後宮，將老兵驕，不堪成事。”라고 당태종을 조롱하는 시를 먹물을 새겨 보낸다. 크게 모욕감을 느낀 당태종은 전쟁을 결심한다. 이 사건은 전체 서사의 출발점이 된다. 그 이후 당태종은 모두 네 차례에 걸쳐 연개소문의 위협을 받는다. 꿈속에서는 목숨이 경각에 달린 상황에 처해 겨우 깨어나고, 鳳凰城·榆林城·思鄉城³⁵⁾에서 연개소문 군대에 게 포위를 당했다가 설인귀의 도움을 받는다. 駐蹕山 전투에서는 李思摩 등 세 장수가 잇달아 연개소문에게 패하는 것을 보고 크게 탄식하기도 한다. 당태종과의 대결에서는 압도적 우위를 보이는 연개소문도 설인귀와의 대결에서는 현저한 열세에 놓이며, 결국에는 설인귀에게 사로잡혀 당태종에게 초라하게 목숨을 구걸하다가 참형되고 만다. 이야기는 당태종이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개선하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35) 思鄉城은 高隋전쟁 때 패한 수나라 유민들이 세운 성으로 산둥반도 靑州에 있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다. 고당전쟁을 다룬 소설들의 지리 배경은 뒤죽박죽인데, 이처럼 산둥반도도 고구려령으로 설정되어 있음은 특기할 만하다. 이는 뒤에서 살펴볼 설화들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설인귀정요사략』은 문헌상 고당전쟁을 허구서사로 지어낸 첫 번째 작품이다. 설인귀는 계급갈등과 민족갈등을 차례로 해결하면서 영웅으로 거듭나는 것이 서사의 본류이다. 두 갈등 중에서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계급갈등인데, 이는 지배관료에 대한 민중들의 반감이 깊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설인귀의 입신 과정을 서사의 본류로 삼았기에, 나머지 인물들은 종속적으로 배치되어 있으며, 기본적인 역사 사실의 왜곡이 심각하다.³⁶⁾ 張士貴의 인물형상은 역사기록과 그것과 거리가 멀고, 설인귀와 연개소문의 대결도 모두 허구이다. 당태종 또한 극히 초라하게 형상화되었는데, 이는 역사적인 전쟁을 대하는 민중들의 시선이 장사귀와 같은 지배관료뿐만 아니라 제왕에게도 지극히 냉소적이었음을 의미한다. 연개소문은 당태종을 조롱하고, 당의 침략군에 맞서 태종을 수차례 위기로 몰아넣다가 설인귀에게 패배하는데, 이는 이후 민간 서사문학의 발달은 물론이고 연개소문의 문학적 형상의 발전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정도의 차이를 논외로 하면, 이후의 민간서사에서 ‘설인귀 > 연개소문 > 당태종’이라는 힘의 우열 구도는 항수가 되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공식 역사 기록과는 다른 민중들의 역사인식을 읽을 수 있음은 물론이다.

『唐書志傳通俗演義』는 명나라 말 熊大木의 작품이다.³⁷⁾ 시대 배경은 隋末 이세민의 거병으로부터 안시성 전투에서 실패하고 군사를 돌려 내치에 주력하기까지이다. 신구 『당서』 및 『자치통감』 등 역사서의 기록을 터와 기둥으로 삼고, 허구의 상상력으로 들보와 기와를 올린 작품이다. 645년 고당전쟁의 경우 당군의 이동 경로 및 전투 상황 등은 역사서의 내용과 거의 일치하며, 역사 기록도 많은 부분 그대로 차용하고 있다. 다만 세부 정황과 대사 등은 창작된 것이 많다. 당태종의 일생 정치 행적을 뼈대로 삼고 있으나, 그 시기의 정치 상황을 포

36) 『설인귀정요사략』에 나타나는 역사 사실의 왜곡에 대해서는 박재연, 앞의 논문, 204면 참조.

37) 『唐書志傳通俗演義』는 ‘古本小說叢刊 제 4집의 1,2책으로 영인 간행되어 있어(中國 中華書局, 1989) 어렵지 않게 구해볼 수 있다. 국내에서는 아직 이 소설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논저는 『燕行路上的 공간 탐색, 鳳凰山城 -安市城說과 관련하여』, 『정신문화연구』 103(한국학중앙연구원, 2006.6)에서 조선후기 안시성과 양만춘에 대한 관심의 증대와 관련하여 이 책의 영향력을 언급한 바 있다.

괄하고 있기 때문에 『설인귀정요사략』보다 서사의 편폭이 훨씬 크다. 8권 90절로 이루어져 있는데, 연개소문은 7권 76절부터 본격적으로 등장한다.³⁸⁾ 홍미와 민간의 요구에 맞춰 역사 상황을 입체적이고 생동감 있게 구성하다보니, 고구려 내부의 정황도 구체적으로 묘사되었다. 고구려 장수가 30명가량 등장하며, 침략을 당한 고구려의 입장도 꽤 적극적으로 반영되어 있다.³⁹⁾

이 작품에서도 연개소문은 역시 전쟁을 일으키는 주역으로 등장한다. 당태종이 裴思庄을 고구려에 파견하여 신라의 貢道를 차단한 책임을 묻자, 大對盧는 稱臣進貢하여 국가의 안위를 도모하자고 건의한다. 왕이 이를 따르려 하는데, 연개소문이 사나운 목소리로 대대로의 나약함을 꾸짖고 강경하게 반대 입장을 밝힌다. 연개소문은 자기가 있는 이상 당이 고구려를 엿볼 수는 없다며, 신라를 먼저 쳐서 당의 날개를 자르고, 백제 등 이웃나라들과 연대하여 그들로 하여금 당의 배후를 습격하게 한 뒤, 자신이 직접 쳐들어가면 당이 견디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⁴⁰⁾ 이 대목은 완전 허구이다. 고구려에서 배사장을 안시성에 가두고 연개소문의 계획을 실행에 옮기자 당에서는 相里玄奘을 파견하여 고구려를 설득한다. 相里玄奘은 연개소문으로부터 “그대는 辯舌을 좋아하는데 裴思庄의 경우를 보지 못했는가?”라는 말을 듣고 입을 다문 채 돌아와 당태종에게 보고한다. 相里玄奘의 파견 및 그 이후의 사건 전개는 역사서의 기록을 거의 그대로 따르고 있다. 이후 연개소문은 배후에서 외교와 지원 등 전쟁의 전체 판도를 지휘하는

38) 성은 ‘原’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호칭은 대부분 성씨를 뺀 蓋蘇文으로 표기되어 있으며, 가끔 莫離支로도 일컬어진다.

39) 新城 전투에서 고구려 장수 金精通은 당 장수 曹三良에게 “唐主는 이미 관중을 차지하였으니 자기 강토나 보전하면 충분할 걸, 무슨 일로 우리 영토를 침입하여 스스로 목숨을 버리려 하느냐?(唐主已都關中, 自保疆土足矣, 何乃又侵吾境, 自來送死耶?)”고 꾸짖는다.(78절) 黃龍坡 전투에서도 歐飛는 비슷한 내용으로 張士貴를 꾸짖으며(83절), 建安城에서 사로잡힌 盧漢三은 끝까지 당의 장수들을 꾸짖으며 장렬하게 죽어간다.(87절)

40) 『唐書志傳通俗演義』 권 7, 76절 : “忽一人厲聲進曰, ‘大左丞何其弱也?’衆視之, 其人貌質魁秀, 濃眉美髯, 乃本國專臣莫離支蓋蘇蓋文也. 穿帶魁服, 皆飾以金玉. 佩三口飛刀, 有萬夫不當之勇. 立朝中, 左右莫敢仰視. 是日奏高麗王曰, ‘中國有征伐之兵, 吾國有豫備之固. 唐天子只好平服他處, 蓋蘇文在此, 彼敢正視高麗耶?’大王且把使臣監了. 先統本國精兵, 臣請先伐新羅, 以剪中國輔翼. 然後遣人結連百濟, 許以附近封邑, 與之乘勢長驅, 入關關中, 使百濟跨海襲其後, 吾出新城攻其前. 唐之君臣, 便有呂望之才, 馬援之勇, 可能當哉?’”

역할만 담당하며, 시종 奸臣으로 지칭된다.

『薛仁貴征遼事略』과 달리 『唐書志傳通俗演義』는 정통 역사연의를 표방하였다. 기본적인 사실을 토대로 서사를 구성하였으며, 역사 기록을 서사의 열개로 삼고 있다. 이는 두 작품이 작가의 지적 수준, 미의식, 대상 독자층 등에 있어 근본적으로 상이한 입지 위에 서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전쟁의 발단을 신라의 入貢路 차단 호소로 설정한 것이나,⁴¹⁾ 안시성 싸움에서 실패하고 군사를 돌이키는 결말은 역사 기록과의 부합이라는 측면에서 전연 무리가 없다. 호풍환우하는 고구려 장수 東頂漢이나 고구려 동맹국으로 鐵勒國을 등장시킨 것은 그러한 원칙에서 어긋나지만 이는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梁萬春 등 고구려 장수들을 대거 등장시킨 것은 서사의 긴장감과 역동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 볼 수 있다. 연개소문을 對唐 강경책의 주도자이면서 전쟁의 배후 조정자로 설정한 것은, 당시 고구려의 정치 상황이나 역사 기록에 그가 전투 현장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서사 구성의 상상력이 당시의 역사 상황에 대한 합리적 판단의 범주 안에서 발휘된 것으로 보인다. 『唐書志傳通俗演義』에서 연개소문은 대당 강경책으로 전쟁 발단의 동기를 제공하고, 외교 및 전쟁을 막후에서 조정한 정치 실력자로, 그의 최후는 나타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작품은 『說唐後傳』이다. 이는 康熙 연간에 간행된 『說唐』의 후속편으로 18세기 후반 乾隆 연간에 나온 것으로 보인다. 작가는 다르지만, 비슷한 시기에 지어진 『說唐三傳』과 하나로 묶여 『說唐全傳』으로 통칭되기도 한다. 『薛仁貴征遼事略』과 『唐書志傳通俗演義』에 비해, 역사 기록에 구애받지 않고 내용을 구성하였으며 백화체를 전용하였다. 이러한 문체와 내용상의 특징은, 이 작품이 앞의 두 작품에 비해 훨씬 더 민간의 수요와 상상력에 기반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연개소문은 16회에서 53회에 걸쳐 등장하며, 서사의 전면에서 당대

41) 고당전쟁 발발의 직접적 계기가 고구려와 백제가 연합하여 신라의 入貢路를 차단한다는 신라 사신의 호소(643년 9월)였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기동, 『7세기 동아시아 국제사회와 신라의 삼국통일 전략』, 『신라문화』 24, 동국대 신라문화연구소, 2004, 17면.) 이는 『薛仁貴征遼事略』의 百濟 昌黑飛 설정과 분명하게 대조되는 점이다.

종 및 설인귀와의 武勇과 군사 대결을 주도한다. 무술과 무기를 제공하며 때로는 직접 지원도 마다하지 않는 신선이 등장하고, 이웃 나라들과의 군사적 연합도 대규모로 펼쳐진다.⁴²⁾ 『說唐後傳』에 나타나는 인물 사이 힘의 우열 구도는 『薛仁貴征遼事略』이 처음 제시한 ‘설인귀 > 연개소문 > 당태종’의 그것에 따르고 있는데, 그 등장 빈도와 비중에 있어서는 여타 작품과의 비교를 불허할 정도로 연개소문의 위상은 높게 설정되어 있다. 연개소문은 수많은 전투에서 당태종을 압도하며 전쟁의 전체 국면을 이끌어간다. 『說唐後傳』은 앞 두 작품이 보여주는 연개소문의 형상을 통합하면서 강화하고 있는 셈이다.

그중에서 연개소문의 위상이 한껏 부각되어 있는 몇 장면을 소개한다. 연개소문은 不齊國 왕이 당태종에게 보내는 보물을 탈취하고, 사신 王彪의 얼굴에 먹물로 시를 새겨 넣는다. 고구려 왕에게 조공하지 않으면 군사를 일으킬 것이며, 戰書를 나의 아이 이세민에게 전해달라는 말로 마무리하였다.⁴³⁾ 분을 이기지 못한 당태종은 군사를 일으키지만 그의 굴욕은 갈수록 심화된다. 연개소문은 봉황산의 당태종을 포위하고, 위엄이 넘치는 모습으로 당태종을 ‘唐童’으로 호칭하며 고구려에 귀순하여 머리를 조아리고 稱臣하면 목숨만은 살려줄 것이라고 제안한다.⁴⁴⁾ 연개소문은 시종 당태종을 어린아이로 취급한다. 당태종 휘하의 네 장수가 잇달아 말을 달려 나가지만 모두 순식간에 연개소문에게 척살 당하고 만다. 이에 26명의 장수가 나서 연개소문을 함공하나, 연개소문은 신기의 飛

42) 『說唐後傳』은 古本小說集成 149, 150쪽에 『說唐演義後傳』上·下로 실려 있다. (中國 上海 : 上海古籍, 1994) 인쇄본으로는 『說唐全傳』(中國 長沙 : 岳麓書社, 1993)의 『說唐後傳』을 참조하였다.

43) 시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面刺海東不齊國，東遼大將蓋蘇文。把總催兵都元帥，先鋒挂印獨稱橫。幾次興兵离大海，三番善義到長安。今年若不來進貢，明年八月就興兵。生擒敬德秦叔寶，活捉長安大將軍。戰書寄到南朝去，傳與我兒李世民。” (16회)

44) 해당 주요 원문은 다음과 같다. “大元帥冲出營來。你道他怎生打扮，頭戴一頂嵌寶獅子青銅盔，雉尾高挑，身穿一領二龍戲水藍青蟒，外置雁翎甲，前後護心，鎖袋內懸弓，右邊插一壺狼牙箭，坐下一匹混海駒，手端赤銅大砍刀，立住山脚，高聲大喊道，“呸，山上唐童聽者，你在中原穩坐龍庭，太平無事。想你活不耐煩，前來侵犯我邦。今日上門買賣，不得不做。唐童要逃命，也萬萬不能，若降順我邦，低首稱臣，我狼主決不亏你一家。親王封你的，待保全性命，亦且原為萬人之尊。若不聽本師之言，管叫一山唐兵盡作刀下之鬼。” (31회)

刀術로 唐將 26명을 일거에 살상한다. 또 실제 여러 차례 요동총관을 맡아 고구려와의 전쟁을 주도했던 尉遲敬德에게도, 늙은 몸으로 어떻게 주군을 보호할 수 있겠느냐며, 차라리 唐童을 잡아 바치면 높은 벼슬을 주겠노라고 조롱한다.

연개소문의 위세와 당태종의 굴욕은 41, 42회에 이르러 극에 달한다. 越虎城에 있던 당태종은 사냥 중 토끼를 쫓다가 일행과 떨어져 혼자 남게 된다. 적기를 포착한 연개소문은 맹렬하게 당태종을 추격한다. 다급한 당태종은 ‘蓋王兄’을 연발하며 국토의 반을 잘라 줄 테니 살길을 열어달라고 애원하다가 막다른 바닷가에까지 몰리고 말았다. 당태종은 계속 목숨을 구걸하였다. 당태종의 항복을 받으면 고구려가 당의 전 국토를 접수하여 천자국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연개소문은 당태종에게 降表 작성을 종용한다. 당태종이 항표를 쓸 줄 모른다고 버티자, 연개소문은 그 교활함을 비웃는다. 종이가 없다고 하면 黃綾 자락에 쓰면 된다 하고, 필묵이 없다고 하자 혈서를 쓰라고 다그친다.⁴⁵⁾ 당태종은 손가락을 뺏을 때의 통증도 두렵고 온 나라를 통째로 넘겨주는 것도 아까워 눈물을 흘리며 하소연하지만 연개소문은 조금도 사정을 보이지 않는다. 將軍洞 火頭軍에 편성되어 있던 설인귀에 의해 구출되기까지 무려 1800여 자 9장에 걸쳐 펼쳐지는 이 장면은 연개소문과 당태종 대결의 압권이다.

결국 설인귀의 龍門陣에 빠져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연개소문은 목숨을 구하다가 안 되자, “관두자. 네가 용납하지 않는다면 말을 멈추고 이 목을 가져가거라!”라는 말과 함께 결연하게 자결한다. 설인귀가 떨어진 머리를 창끝에 꿰어 들자, 연개소문의 목에서 청룡이 나타나 설인귀를 바라보다가 떨어진 머리가 끄덕이고 눈을 감자 비로소 서쪽 하늘을 향해 날아갔다.⁴⁶⁾ 청룡은 동방을 표상하

45) 항표 쓰기를 다그치는 장면의 대화 내용만을 원문으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天子道, ‘但是紙多沒有在此, 叫朕寫在何處?’ 蘇文說, ‘要紙紙何用, 你的黃綾跨馬衣, 割下一則衣衿, 寫在黃綾上, 使你們大臣肯服.’ 天子說, ‘蓋三兄, 黃綾雖有, 無筆難揮.’ 蘇文叫聲, ‘唐童, 若用筆寫, 難以作證, 你把小指嚼碎淋血, 揮寫一道血表, 待我拿去.’” (41회)

46) 연개소문의 마지막 장면 원문은 다음과 같다. “蓋蘇文道, ‘也罷! 你既不相容, 且住了馬, 拿這頭去罷!’ 便把赤銅刀望頸項內一刎, 頭落在水, 仁貴把鞍尖挑起, 挂於腰中. 但見蘇文頸上呼一道風聲, 透起現出一條青龍, 望着仁貴, 把眼珠一閉, 頭一答, 竟望西方天際騰雲而去. 鮮血一冒, 身子

는 瑞獸이니, 연개소문의 죽음은 자못 신화적인 분위기를 지닌다.⁴⁷⁾ 연개소문의 죽음으로 25회에 걸쳐 펼쳐졌던 도도한 전쟁담은 마무리되고 당태종은 장안으로 개선한다. 하지만 거대한 파도일수록 餘波가 있는 법이니, 연개소문의 존재감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 平遼王의 작위를 받고 고향에 돌아온 설인귀는 獨角牛頭의 괴수에게 죽을 위기에 처한 소년을 구하려 화살을 쏘았는데, 그만 잘못 소년의 목을 맞춰 죽이고 말았다. 이 소년은 설인귀가 군대에 투신한 뒤 그의 아내가 낳은 아들이고, 괴수는 연개소문 혼령의 화신이었으니, 소년의 죽음은 연개소문의 복수였던 것이다.⁴⁸⁾ 이로써 연개소문과 설인귀는 모두 승패를 나눠가지며, 둘의 대결은 이 세상의 일로 그치지 않는 여운을 지니게 된다.

중국 속문학사에서 연개소문이 설인귀의 상대역으로 등장하는 이야기의 전통은 다채롭다.⁴⁹⁾ 여기서서 그 중 세 편의 서사 작품을 분석한 것이다. 세 작품 사이 허구의 정도는 편차가 심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개소문은 공히 高唐전쟁의 계기를 제공하였으며, 뛰어난 무용으로 당태종을 위기에 몰아넣는 인물로 설정되어 있다. 역사기록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唐書志傳通俗演義』를 제외한 두 작품에서 당태종은 연개소문에 의해 초라해지는 인물로 격하된다. 여기에는 역사기록의 분석에도 불구하고 당태종은 전쟁에서 실패했다는 재야의 역사인식과 아울러 지배 권력층에 대한 민중의 비판의식이 투영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인식은 설인귀 중심의 서사로 실현되었고, 설인귀 중심의 민간 서사가 흥미 위주로 자기발전하면서 대결 또한 설인귀/연개소문의 구도로 정착된다. 이

落水，沈到海底。這匹坐騎游水前行，去投別主，不必去表。可憐一員遼東大將，頃刻死於非命，正是，瓦罐不離井上破，將軍難免陣中亡。蘇文一旦歸天死，高建庄王霸業荒。”(52회)

47) 연개소문과 설인귀를 각각 靑龍과 白虎의 화신으로 대비하여 이해하는 방식은 꽤 오랜 내력을 지니고 있다. 신경섭, 「연개소문 인물 형상 연구 -중국 고사의 유래와 변천을 중심으로」, 『동양정치사상사』 제 7권 1호, 한국동양정치사상사학회, 2008, 242·243면 참조.

48) 이 사건에 대한 서술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原來這個怪物，有箇來歷的，他却是蓋蘇文的魂靈靑龍星。他與仁貴有不世之仇，見他回來，要素他命，因見仁貴官星盛現，却他不得，使他傷其兒子，欲絕他的後代，也報了一半冤仇。”

49) 여기에 대해서는 신경섭의 앞의 논문과 함께, 「俗文學中薛仁貴，蓋蘇文故事的由來及演變」, 『아시아문화연구』 2, 경원대 아시아문화연구소, 1997 참조.

렇게 해서 연개소문은 역사기록과는 다른 차원의, 구체적인 목소리와 능력을 지니고 사건을 주도하는 인물 형상을 지니게 된다. 소설 속 연개소문의 인물 형상은 역사기록에 나타나는 비범한 면모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이는 설인귀의 민중 영웅적 면모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허구적으로 한껏 부풀려진다.

5. 전승의 또 다른 경로, 설화

당태종이 재위하던 7세기 중반은 ‘貞觀의 治’로 일컬어질 만큼 전성기였다. 당태종은 역대 어떤 제왕도 해내지 못한 대업을 성취했다며 자신의 성취에 자부가 대단했다. 대단한 자부의 근거는 주변국의 평정이었고,⁵⁰⁾ 이는 많은 부분 사실과 부합한다. 하지만 그에게는 역사적 대업도 가려주지 못하는 두 오점이 있었으니, 하나는 ‘玄武門의 變’이고 다른 하나는 ‘征東의 실패’이다. 덮으려고 할수록 두 오점은 더욱 커졌고, 치적과 오점의 간극은 벌어졌다. 이는 당태종이 지닌 자기모순이고, 이 모순에서 수많은 이야기가 탄생했다. 소설에서 연개소문은 ‘玄武門의 變’을 드러내어 당태종을 공개적으로 조롱했고, 四海一統의 포부를 좌절시켰다. 소설의 상상력은 당태종의 두 오점과 연개소문을 연결 지었으니, 당태종의 위상이 내려갈수록 그에 반해 연개소문의 위상은 올라갈 수밖에 없었다. 설인귀는 위기에 빠진 당태종을 구하고 연개소문을 폐퇴시킴으로써 민중의 영웅이자 국가 영웅으로 거듭난다. 실제 설인귀는 당태종의 征東에서 입신한 인물이다.⁵¹⁾

50) 647년 3월과 5월에 각각 신료들에게 말한 아래 구절에서 그 자부심을 엿볼 수 있다. “(21년 3월 辛卯)上曰, 朕於戎狄, 所以能取古人所不能取, 臣古人所不能臣者, 皆順衆人之所欲故也.”; “(21년 5월 庚辰) 上御翠微殿, 問侍臣曰, 自古帝王雖平定中夏, 不能服戎狄. …… 自古皆貴中華, 賤夷狄, 朕獨愛之如一故, 其種落, 皆依朕如父母.” 이상은 『자치통감』 권 198.

51) 당태종이 요동에서 철수한 뒤 요동을 얻은 것보다 짧은 장수 설인귀를 얻은 것이 기쁘다고 한 말이 『신당서』, 『설인귀전』과 『자치통감』에 실려 있다. 아래는 전자의 예문이다. “師還, 帝謂曰: “朕舊將皆老, 欲擢驍勇付闕外事, 莫如卿者. 朕不喜得遼東, 喜得敵將.”

당태종과 연개소문, 설인귀 세 사람의 관계를 기본 축으로 하는 서사는 민간에서 전승된 설화에서도 다양하게 발견된다. 소설은 역사기록의 사각지대를 독자적인 세계관과 상상력으로 복원했다. 탄생의 기반과 전승의 방식, 계층, 지역 등에 있어 설화는 소설과 또 다른 차원에 놓여있다. 설화에는 소설과 같은 자기규범으로서의 형식이 없고, 문자의 구속으로부터도 자유롭다. 그 향유와 전승 또한 대체로 역사기록이나 소설의 수용자들보다 하층에서 이루어진다. 서사 규모는 구전의 특성상 한 두 건의 간단한 사건을 넘지 않는 단형일 수밖에 없다. 설화가 전승의 또 다른 경로라고 해서, 그 경로가 독자적이라는 뜻은 아니다. 소설이 역사기록을 모태로 하거나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탄생했듯이, 설화 또한 역사기록 및 소설과의 긴밀한 관련 속에서 형성, 전승되어 왔다. 그 과정에서 내용의 변개는 물론 첨삭이 빈번하게 일어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모습의 설화를 텍스트로 삼을 수 있는 것은 핵심 화소는 좀처럼 변질되지 않는다는 사실 때문이다.

현재 중국 내에서 전승되어 온 연개소문 관련 설화에 대한 자료 수집과 정리, 그리고 연구는 시도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자료의 접근에 상당한 제약이 있음을 의미한다. 이 절에서는 이러한 한계를 전제하고, 지금까지 채록된 설화를 중심으로 연개소문의 형상을 검토하고자 한다. 설화 자료는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수집한 것을 분석하기로 한다. 첫째는 논자가 최근 몇 년 사이 요동 일대에서 직접 채록한 것들이고, 다른 하나는 중국의 여러 인터넷상에 소개되어 있는 것들이다. 이밖에 근대 이전 地誌에 간략하게 기재되어 있는 것들도 보조 자료로 활용한다. 설화의 검토는 전승 경로와 계층에 따른 연개소문 형상의 변용 및, 역사기록·소설과의 상호 관련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지금까지 수집된 자료를 종합해보았을 때 연개소문 관련 설화의 분포는 크게 세 지역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역사기록상에 등장하는 고당 전쟁 접전지, 또는 고구려 산성이나 관련 지명이 남아있는 곳이다. 요동반도의 경우 安市城이 있었던 곳으로 추정되는 요동반도 북단의 蓋州와 海城 일대는 물론 岫巖과 庄河 등 거의 전 지역에서 발견된다. 이밖에 치열한 전투를 거쳐 함락된 遼陽과 白巖

城(燕州山城) 일대, 그리고 전투기록이 남아있지 않은 鳳城의 鳳凰山城(烏骨城), 그리고 鐵嶺의 催陣堡山城 일대에서도 설화가 채록되었다.⁵²⁾ 둘째, 당태종 군대의 퇴각로 근방의 天津, 薊州, 豐潤, 北京 등지에서도 설화가 전승되었다. 이 두 지역은 역사기록과 밀접한 상관성이 있다. 셋째는 山東半島와 江蘇省 해안의 여러 지역에서도 적지 않은 설화가 채록되었는데, 이들 지역은 역사기록상 관련성이 거의 없는 곳들이다.

내용을 기준으로 하면 설화는 크게 세 범주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연락체계 부실로 인한 고구려 성의 함락에 관한 이야기로, 요녕성 燈塔의 백암성, 수암의 娘娘山城, 장하의 성산산성 등에서 채록되었다. 약간씩의 내용 변개가 있긴 하지만, 그 중심화소를 추리면 다음과 같다. ①(연)개소문에게는 (淵)蓋蘇眞이라는 누이동생이 있었다. ②연개소진은 성을 지키고 있었다. ③장난으로 봉화를 올리거나 깃발을 돌렸다. ④지원군이 급히 왔다가 허탕치고 돌아갔다. ⑤실제 당의 대군이 몰려왔을 때 봉화를 올렸지만 지원군이 오지 않아 성이 함락되었다. 역사기록은 물론 소설에도 등장하지 않는 인물인 연개소진의 등장 연유와 의미에 대해서는 일단 논외로 하자. 이들 설화에서 연개소문은 배후에서 전쟁을 지휘하는 인물로 설정되었고, 또 성의 함락은 광대한 지역에 흩어져 있던 고구려의 지휘 및 연락 체계의 약점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부분 사실의 토대 위에서 형성·전승된 것으로 보인다.

둘째, 위기에 몰린 당태종이 계략으로 고구려군을 물리쳤다는 내용이다. 이들 설화에 연개소문은 등장하기도 하고 등장하지 않기도 한다. 謊糧堆 설화와 積穀墩 설화가 대표적이다. 당태종의 군대가 연개소문 남매의 군대에게 포위당한 데다 군량미마저 고갈되었다. 당태종은 73기의 흙무더기를 쌓고 그 위를 곡식 난 알로 덮어 고구려 군대를 물러가게 했다는 것이 謊糧堆 설화의 골자로,⁵³⁾ 蓋州

52) 논자는 동북아역사재단의 지원을 받아 2007년 4월부터 4차례에 걸쳐 요녕성에서 고구려 관련 설화를 채록, 분석하는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의 일부를 보고하였다. (『遼東 지역 高句麗 관련 설화의 문헌 및 현장 조사 연구』, 『고구려의 등장과 그 주변』) 기초적인 채록 및 지리적 정황에 대해서는 이 글에 따른다.

市 靑石嶺鎮 黃糧堆 마을이 전승의 현장이다.⁵⁴⁾ 積穀墩 설화는 황량퇴 설화의 그것과 비슷한데, 전승의 현장이 天津市 薊縣 동남쪽 25리 王莊屯에서 二里店 사이라는 점이 다르다. 積穀墩은 積骨墩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수많은 당군 전사자들의 유골을 묻었기 때문이다.⁵⁵⁾ 이밖에 遼陽市 鷄鳴村의 지명 유래담, 계주 근처 豐潤縣의 還鄉河와 高麗鋪(堡)의 내력, 그리고 역시 薊縣의 馬伸橋 설화 등도 당태종 퇴각시의 여러 상황을 말해준다.⁵⁶⁾ 이들 설화의 전승지는 대부분 당태종 군대의 이동경로와 멀지 않은 곳이고, 또 역사기록의 내적 정황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일정 부분 역사적 사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조심스럽게 추정할 수 있다.

셋째, 역사기록 및 소설과 다른 상상력과 운동성을 지닌 설화의 속성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산동반도와 강소성 일대에 전승되는 양상에 특히 주목해야 한다. 이 설화들은 모두 연개소문 군대가 바다를 건너 내침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한다. 몇 편의 설화 내용을 개괄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산동반도에 전승되는 설화들을 살펴보자. 당태종은 산동반도 卽墨 지방에서 연개소문의 군대와 대치하다가 포위 당해 위기에 빠졌는데 金然의 활약으로 구출되었다. 이후 馬山에 김휴를 기리는 기념물이 조성되고 민간신앙이 발생했다.⁵⁷⁾ 烟台市 蓬萊縣에는 正响·解

53) 개주시 홈페이지에서는, 위 전설을 언급한 뒤 황량퇴 마을에서 남쪽의 三块石, 동쪽의 螞虹咀에서 시작하여 서쪽의 趙家 및 方團 마을에 이르기까지 대략 사방 5km 되는 너비의 땅에 크기가 다른 72개 반의 土丘가 있으며, 현지 사람들은 이를 坨子라고 부른다고 소개하였다. (<http://www.gzhous.com/qs14.htm>)

54) 황량퇴 설화는 중국의 여러 지역에서 전승되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신채호는 북경 근처의 황량대 설화를 근거로 연개소문의 북경 침공설을 주장했다. 신채호 / 진경환 역주, 『朝鮮上古史』, 인물연구소, 1982, 314면.

55) 관련 설화의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天津日報』 2004년 12월 20일 자 (<http://past.tianjindaily.com.cn/docroot/200412/20/rb02/20100302.htm>) 참조.

56) 鷄鳴村과 還鄉河 등에 대해서는 조선시대 연행록에 기록이 적지 않게 남아있다. 馬伸橋 설화에 대해서는 『天津日報』, 2007년 2월 13일자 (http://www.tj.gov.cn/tjgk/20070213103047_134.htm) 참조.

57) 원래 이 설화는 청나라 李寅寅이 편찬한 『馬山志』에 나온다고 한다. 이 설화에 대해서는 靑島市 卽墨縣 홈페이지(<http://www.jimo.gov.cn/jmwenhua/ju/news/200711811155787097.htm?typeid=847&videos=>) 참조.

家・上營・中營・小雪・大雪・覓鹿芥・臥鹿・遇駕芥村・護駕溝村・古城・大王廟・摻駕瞳村・王溝村・落駕河・灑甲河・將軍洞 등 20개에 가까운 지명이 연개소문 군대의 내침과 관련 있다고 한다. 이 중에서 大王廟・王溝村・落駕河・灑甲河・將軍洞 등은 당태종의 패배 및 도주 사실을 반영한 지명들이다.⁵⁸⁾ 이들 설화의 전승을 두고 蓬萊歷史文化研究會에서는 ①설화적 와전과 ②역사 사실의 忌諱 두 가지 가능성을 제시했다. 설화의 사실 여부는 논지에서 벗어나니 거론하지 않는다. 다만 산동반도는 당시 水軍의 이동경로였다는 점에서 역사 사실과 전혀 무관한 것은 아니며, 아울러 연개소문의 산동반도 침략은 『薛仁貴征遼事略』에서도 나타난다는 사실을 지적해두고 넘어가기로 한다.

高唐戰爭과 지리적 상관성이 전혀 없는 江蘇省 일대에서 연개소문 관련 설화가 전승되어온 것은 흥미로운 일이다. 설화는 連雲港市 宿城 保駕山, 宿遷市 靈楮山, 鹽城 建湖縣 辛莊鄉 寶塔村 세 곳에서 채록된 것이 유명하다. 세 편 모두 연개소문의 내침을 배경으로 한다. 保駕山은 설인귀가 당태종을 보호했다고 해서 붙은 이름이며, 여기에는 그와 관련하여 拴馬松・唐王洞・蘇文頂 등의 지명이 남아있다. 당태종은 연개소문에 의해 죽음 직전까지 몰렸다가 설인귀의 도움으로 살아나고, 張士貴의 농간 속에 가려진 천하 將才 설인귀를 얻는다는 내용이다.⁵⁹⁾ 靈楮山 설화는 설인귀가 당군의 연패를 끊고 연개소문 군대에게 대승을 거두었다는 내용으로, 藏軍洞・點將臺・冷飯臺・擁煎餅 등의 지명이 남아있다.⁶⁰⁾ 寶塔村의 朦朧塔 전설은 당태종이 연개소문에게 쫓기다가 목은 우물에 숨었는데, 거미줄의 도움으로 목숨을 구한 뒤 그 은혜를 기려 우물 근처에 탑을 세웠

58) 이들 지명 유래와 관련된 구체적 이야기는 蓬萊歷史文化研究會 / 賀小倩 편집, 『蓬萊民間流傳之唐二主征東史事正訛』(膠東在線 홈페이지 / <http://www.jiaodong.net/wenhua/system/2007/02/08/000117605.shtml>, 2007년 4월 3일)와 蓬萊人 홈페이지 / <http://www.penglair.com/Article/lswh/200810/15.html>, 2008년 10월 24일) 참조.

59) 이 설화의 전체 내용은 連雲港文化網(<http://www.lygwh.gov.cn/show.asp?id=1995>, 2007년 8월 20일 / 朱文泉 수집 정리) 참조.

60) 이 설화는 嶂山森林公園을 소개하는 여러 인터넷 사이트에 올려져 있다. 여기서는 愛自由旅游网(http://www.izy.cn/travel_guide/650/0_0_4935_1_0_0.html)을 참조했다.

다는 이야기다.⁶¹⁾ 이 설화에는 당태종이 淤泥河에 빠졌던 내용도 있으며, 지금도 탑의 동북방으로 어니하가 흐른다고 한다.⁶²⁾

중국 내 연개소문 관련 설화 전승에 관한 종합적인 보고서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결론을 내리기에는 성급하지만, 이상 살펴본 몇몇 설화를 표본으로 연개소문의 형상 특징을 설명할 수는 있을 듯하다. 역사기록에 나오는 바 접전이 벌어졌던 곳이나 당태종 군대의 이동 경로 부근에서 채록된 설화는 대개 상징의 방식으로 사실 정황을 보여주거나, 아니면 기록의 이면에 감추어져 있는 당태종의 곤경을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여기에는 전쟁을 바라보는 민중의 솔직한 시선과 판단이 내포되어 있으며, 복잡한 전후관계와 권력의 이념적 수사를 배제한 채 단형의 서사로 전쟁을 그려내고 있어, 전쟁 상황을 입체적으로 재구하는 데 도움을 준다. 반면 역사기록에 나오지 않는 지역의 설화에서, 연개소문은 침략자의 형상으로 등장한다. 연개소문은 바다를 건너 당 내지를 선제공격하며, 당태종은 그 때문에 곤경에 빠졌다가 겨우 목숨을 건진다. 어떤 연유로 산둥반도와 강소성에서 연개소문 설화가 형성 전승되었는지 지금으로선 알 수 없다. 다만 침략자로서 중원의 황제를 위협하는 연개소문의 형상에는, 오랜 세월 중원을 침범했던 수많은 이민족 지도자의 이미지가 투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 가지 덧붙일 것은 설화와 역사기록, 설화와 소설의 함수관계이다. 설화가 역사기록이 은폐한 역사적 사실을 독자적으로 담보하고 있는지, 아니면 전적으로 허구인지는 속단할 수 없다. 또 몇몇 설화에는 『薛仁貴征遼事略』이나 『說唐後傳』의 내용이 보이고, 그중 淤泥河 이야기는 地誌에도 수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이들 사이에 상호 영향의 관계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설화가 소설의 소재가 된 것인지, 아니면 소설의 내용이 설화화 되고 지지에 실리게 된

61) 이 설화도 많은 사이트에 소개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http://www.wangchao.net.cn/bbsdetail_618016.html의 '滕朧塔景区介绍'를 참조했다.

62) 淤泥河는 海城과 蓋州 사이에도 있다. 淤泥河 관련 설화는 『盛京通志』와 『蓋平縣志』와 같은 地誌에도 소개되어 있고, 앞에서 살펴본 바 『說唐後傳』에도 중요한 사건으로 설정되어 있음은 물론, 京劇의 한 제목이기도 하다.

것인지 그 선후관계도 알 수 없다. 다만 하나 분명한 것은 연개소문의 형상은 역사기록보다는 야사에서, 야사보다는 소설에서, 그리고 소설에서보다는 설화에서 공격적이고 강력한 면모를 보인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당태종의 면모는 그에 반비례하여 더 초라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는 전승 계층이 낮아질수록 자국의 제왕에 대해 비우호적이었던 반면 적국 지도자 연개소문을 더 강력한 인물로 인식했음을 의미한다.

6. 조선 지식인의 연개소문 재인식

1911년 박은식(1859~1925)은 우리에게 연개소문에 대한 주체적 기록이 한글자 없음을 탄식하였다.⁶³⁾ 비슷한 시기 신채호(1880~1936)는, 『삼국사기』에서 연개소문 관련 사실은 겨우 “蓋金이 金春秋를 館하였다.”(『김유신전』)는 한 마디뿐이요, 나머지는 모두 중국 역사기록의 초록이라는 사실을 지적했다.⁶⁴⁾ 우리는 연개소문에 대한 1차적인 정보와 이야기를 생산하고 구성해본 적이 없다. 이유 여하를 떠나서 이는 그간 연개소문 담론에 있어 철저하게 소외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대로 오랜 세월 연개소문은 중국의 역사기록·소설·설화들 속에서 생명을 유지해왔다. 그 속에서 연개소문은 언제나 타자였고, 연개소문의 형상은 그들의 관점에 의해 일그러질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사정은 우리의 연개소문 인식이 중국의 그것과 불가분의 함수관계에 있음을 의미한다. 이 절에서는 우리의 연개소문 인식과 변천 양상을 살펴보기로 한다.

고려후기 이후 이 땅의 유자들은 동아시아의 중세를 지배한 중화 문화의 보

63) 박은식, 『泉蓋蘇文傳』, 緒論 : “吾國人士는 其平生을 敘述호는 文字도 無호고 其風采를 模寫호는 書帖도 無호고 其武藝와 劍術을 陳演호는 戲劇도 無호는 뿐 아니라 但一種口氣가 凶賊이라 罵호는 뿐이니 一로써 百을 蔽호고 罪로써 功을 掩호는 것이 可호를 가.” 『白巖朴殷植全集』 제 4권, 동방미디어, 2002.

64) 신채호 / 진경환 역주, 앞의 책, 287면.

편성에 매몰되어 있었다. 최대공약수만을 추리면 중화문화는 중국 주류 지배층 중심의 문화라고 정리할 수 있다. 2절에서 살펴본 역사기록은 연개소문에 대한 중화적 인식의 전형이라 하겠다. 하지만 비주류 지식인, 소설의 독자층, 설화의 전승층에 따라 이야기의 전승 방식과 연개소문의 형상도 변화했다. 조선조 지식인들의 연개소문 인식은 중국의 그것에게서 영향을 받았는데, 여기에는 민족·역사적 차이와 동일성이라고 하는 결정적인 변수도 작용한다. 계층을 떠나 중국인들의 관점에서 연개소문은 민족과 역사의 타자였으나, 조선조 지식인들에게는 동일자였던 것이다. 변화의 핵심은 내면화된 중국인들의 시선, 즉 연개소문을 타자로 간주하는 시선을 걷어내는 것과 관련된다.

그렇다면 조선조의 지식인들은 언제부터 연개소문을 민족과 역사의 동일자로 인식하기 시작했을까? 정확하게 그 기점을 잡거나, 기점을 기준으로 전후를 명료하게 분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 조선의 지식인들은 중국 중심의 역사관과 윤리관으로부터 좀처럼 자유로워지지 못했다. 그런 가운데서도 기록으로 보아 연개소문 인식에서 유교적 도덕과 보편적 중화주의라는 두 잣대를 걷어내고, 민족과 국가적 동일성이라는 새로운 관점을 마련하는 시기는 1600년 전후이다. 여기에는 세종조 이후 빈번해진 사행과 중국 소설의 수입 증가도 외적 원인으로 작용했다.⁶⁵⁾ 하지만 그러한 변화의 결정적 내부 요인은, 대규모 전란을 거듭 겪으면서 형성된 민족·국가 차원의 자의식이었다. 이 시기의 역사 상황은 민족 자의식을 일깨웠고, 자기 정체성에 대한 의문은 고대사에 대한 관심으로 조금씩 이어졌던 것이다. 이런 흐름 속에서 연개소문도 재발견되기 시작했다.

1592년 임진란 초 尹根壽(1537~1616)는 請兵 차 북경을 오가는 길에 연개

65) 사행로 중 압록강으로부터 遼陽, 鞍山, 海州에 이르는 구간은 645년 고당전쟁의 격전지이다. 이 역사 공간을 밟았던 사행 지식인들은 자연스럽게 고대사를 환기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임진왜란을 전후로 대거 수입된 중국 소설도, 연개소문이나 양만춘 같은 고구려 인물들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켰던 것으로 보인다. 후자의 경우 중 『唐書志傳通俗演義』의 유입과 안시성, 양만춘에 대한 관심 제고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이승수, 앞의 논문, 385·386면 참조.

소문의 무덤에 대한 관심을 표명한 바 있다.⁶⁶⁾ 국가의 위기와 연개소문에 대한 관심이 한 시점에서 일어난 것을 우연으로만 볼 수 없음을 다음의 사례들이 암시한다. 趙緯漢(1567~1649)은 1609년 여행길에서 봉황산성을 지나며, 여기서 이 성이 安市城 또는 莒州城으로 불리는 사정, 안시성과 거주성은 다른 성으로 각각 양만춘과 蓋蘇文(연개소문)의 거점이었다는 견해, 그리고 이 일대의 사람들이 그때껏 연개소문의 강대함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 등을 담은 시를 지었다.⁶⁷⁾ 몇 해 뒤인 1616년 허균(1569~1618)은 북경서 돌아오는 길에 湯站을 지나면서, 동부대인의 옛 사취가 莒州城에 남아있다고 하였다.⁶⁸⁾ 비슷한 시기 이수광(1563~1628)은 『韻府群玉』(元)의 한 구절을 인용하면서, 고구려에는 인물이 있었으니 소동과가 연개소문을 영웅으로 본 것은 안목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다.⁶⁹⁾ 세 언급 모두 임진왜란 직후에 나왔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세 언급에서 연개소문에 대한 호감이나 동일자 인식을 발견하기는 어렵지만, 관성처럼 가해졌던 도덕적 비난의 시선이 희석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은 미약하지만 의미 있는 변화의 조짐으로 읽을 수 있다.

임진왜란 이후에도 조선은 深河戰役(1619), 정묘호란(1627), 병자호란(1636)을 잇달아 겪으며 심각한 국가 위기 상황에 봉착했고, 그 과정에서 강성했던 국가 고구려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⁷⁰⁾ 여행사들이 사행 도중 고구려를 환기하는

66) 윤근수, 『月汀集』 권 5, 「送李僉樞壽俊如京序」: “當壬辰亂初, 余承請兵之命, 自龍灣馳赴鳳凰城, 行過所謂開州城者, 山下有雙橋印在路左, 問之, 則劉員外與袁主事, 捨轎乘馬, 往見山上蓋蘇文墳塋. 余之到鳳凰城及往遼東, 問蓋蘇文之墳, 則人無知者, 但聞詔使薛藩之來也, 亦歷見蘇文墳於開州城, 墳前有石碑云. 墳之在此, 可信也.”

67) 조위한, 『玄谷集』 권 5, 「鳳凰城, 或曰安市城, 或曰莒州城, 安市則楊萬春之所守, 莒州則蓋蘇文所據也」: “幾疊青山古戰場, 周遭十里擁金湯. 連城冠岫干星漢, 列堞嬰巒帶劍鋩. 行客謾疑安市蹟, 居民猶說蓋蘇強. 悠悠往事憑誰問, 一抹螺髻帶夕陽.”

68) 허균 / 최강현 옮김, 『乙丙朝天錄』, 「湯站道中」: “亂山殘堞尚縱橫, 千古興亡感慨情. 東部大人餘舊迹, 寒烟衰草莒州城.” 이 번역에서는 동부대인과 거주성의 의미가 밝혀지지 않았다.

69) 『지봉유설』 권 8, 「고문」: “元萬頃爲李勣草檄, 賁高麗不知守鴨綠之險. 莫離支曰謹聞命矣. 徙兵固守. 高宗乃投萬頃嶺外云. 是時句麗蓋有人焉. 蘇東坡以蓋蘇文爲英雄, 亦必有所見矣.” 밑줄 친 부분은 『韻府群玉』에서 인용한 구절이다. 소동과 운운한 것은, 앞에 소개한 張耒의 「趙充國論」이 『蘇門六君子文粹』에 들어있었기 때문에 생긴 착오가 아닌가 한다.

70) 여기에 대해서는 한명기, 「조선시대 韓中 지식인의 고구려 인식 -고구려의 ‘強盛’과 조선의 고

빈도도 부쩍 잦아졌다.⁷¹⁾ 고구려에 대한 인식과 연개소문에 대한 인식이 일치하는 것은 아니고, 조선의 지식인들은 연개소문에게 부과되어 있는 ‘弑君謀逆’이라는 윤리적 죄안만큼은 좀처럼 벗겨내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개소문에 대한 동일자 인식은 은미하게 진행되었다. 1713년 金昌業은 북경에서 돌아오는 길에, 千山과 봉황산에서 현지 사람들이 전하는 연개소문 이야기에 관심을 보였다.⁷²⁾ 金正中也 1792년 연행 귀로에 봉황산성(*그는 안시성으로 오인)을 지나며 연개소문 관련 전설을 소개한 바 있다.⁷³⁾ 이들은 단편적인 기사에 지나지 않지만, 오랜 관습적 가치판단을 배제하고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인식 변화의 한 과정으로 해석할 수 있다.

18세기 이후에는 이러한 변화에 더하여 『虬髯客傳』의 虬髯客과 연개소문을 동일시하는 인식의 흐름이 나타난다. 杜光庭(850~933)의 소작으로 알려진 『규염객전』은 당나라 초기를 배경으로, 규염객이 중원을 도모하다 이세민을 보고 그 꿈을 포기한다는 내용이다. 규염객은 10년 뒤 동남쪽 수천 리 밖에서 큰 사건이 일어나면 자기가 뜻을 이룬 것이라는 말과 함께, 모든 재산과 조인을 李靖·紅拂妓에게 남기고 떠난다. 과연 10년 뒤인 貞觀 10년(636년) 남쪽에서 누군가 부여국 왕을 시해하고 스스로 왕이 되는 사건이 일어났고, 이정 부부는 규염객이 그 주인공임을 짐작했다. 소설은 이정 병법의 절반은 규염객이 전수한 것이라는 누군가의 말로 마무리된다.⁷⁴⁾ 고구려가 부여로 되어있고 또 부여의 지리적 위치가 중국의 동남쪽으로 설정되어 있다는 사실만 제외하면, 그 사건의 내용이나 시대 배경이 연개소문의 그것과 흡사하다. 두 작품을 보기로 한다.

구려 계승 인식을 중심으로, 『한국문화』 38, 서울대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2006.12, 353~357면 참조.

71) 여기에 대해서는 이승수, 『조선후기 燕行 체험과 故土 인식』, 『동방학지』 129, 연세대 국학연구원, 2003.9 참조.

72) 김창업 / 민족문화추진회 역, 『연행일기』 권 9의 3월 8일과 13일조.

73) 김정중 / 민족문화추진회 역, 『기유록』 신해년 3월 1일조.

74) 『규염객전』은 『태평광기』 권 193, ‘豪俠’ 항목에 실려 있다.

규염객은 개소문이라	虬髯客是蓋蘇文
동쪽으로 대국 군대 이끌어 들였도다	勾引東來太國軍
고려시대 학사들 얘기꺼리 남겼으니	留與高麗學士話
백우전에 눈을 잃은 당태종을 웃는도다	玄花白羽笑唐君 ⁷⁵⁾
고구려를 하구려라 착각을 하였으니	句麗錯料下句麗
주필산 푸른 데서 6군을 돌이켰네	駐蹕山青老六師
물어보자 장안에서 李靖 따른 홍불기야	爲問西京紅拂妓
규염객이 정말로 막리지였던 것이냐	虬髯客是莫離支 ⁷⁶⁾

차례로 신광수(1712~1775)와 유득공(1749~1807)의 시이다. 두 사람은 당대의 대표적 문사이고 창작시기는 각각 1774년과 1778년이니, 두 작품을 18세기 후반 지식인 사회의 분위기를 표상하는 것으로 보아 무리가 없다. 신광수의 시는 규염객을 연개소문으로 단정하는 말과 당태종이 안시성 싸움에서 화살에 맞아 한쪽 눈을 잃었다는 이색 시구의 인용으로 시상을 열고 닫았다.⁷⁷⁾ 유득공의 시는 한나라 때 王莽이 고구려를 폄시하여 下句麗라고 불렀듯 당태종이 경솔하게 군대를 움직였다가 안시성에서 퇴각한 사실로 시상을 열었고, 紅拂을 들고 있던 기녀 張氏에게 규염객이 진짜 연개소문이나고 묻는 말로 시상을 닫았다. 紅拂妓 장씨는 『규염객전』에서 楊素를 모시다가 李靖과 虬髯客의 비범한 자질을 차례로 알아본 知鑑 있는 인물이다. 강도의 차이는 있지만, 두 발언 모두에는 ‘규염객은 연개소문’이라는 심증이 배어있다.

규염객과 연개소문을 동일시하는 견해는 계층을 막론하고 18세기 이후 조선 사회에 널리 퍼져 있었다. 이덕무(1741~1793)는 范增·滄海力士·孫權·薛仁

75) 신광수, 『石北集』 권 10, 「關西樂府 其 22」.

76) 유득공, 『冷齋集』 권 2, 「二十一都懷古詩, 高句麗」.

77) 『목은시고』 권 2의 「貞觀吟, 榆林關作」에 들어있는 “謂是囊中一物耳, 那知玄花落白羽.”는 이후, 특히 조선 후기 지식인들 사이에 널리 회자되었다.

貴·朱元璋·누르하치 등이 원래 조선 출신이라는 이야기를 가볍게 기록한 적 있는데, 여기에는 신경준(1712~1781)의 견해도 포함되어 있다.⁷⁸⁾ 성해응(1760~1839)은 여기에 더하여 彭吳를 단군의 신하로 보고 韓終이 辰韓의 왕이 되었다는 민간의 속설도 소개한 바 있다.⁷⁹⁾ 이익(1681~1763)은 규염객이 대조영의 아버지인 乞乞仲象임을 확신했다.⁸⁰⁾ 규염객과 연개소문을 동일시하는 견해는 이러한 흐름 속에 놓여 있다. 유득공은 위 시에 대한 箋注에서, 「규염객전」은 意氣가 桀驚했던 연개소문의 포부와 행적을 그린 것이라고 했다.⁸¹⁾ 『野乘』에서는 한 발짝 더 나가, 연개소문(규염객) 또한 뜻을 얻었지만 霸道만으로는 나라의 주인이 될 수 없었던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⁸²⁾ 이 책의 지은이는 사람을 죽이고 간을 먹는 규염객의 행동과 왕을 학살하고 시신을 도랑에 버린 연개소문의 행동 또한 동일시한 것이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특정 지역과 관련을 맺으면서 마치 사실인 것처럼 민간에 널리 퍼급되고 전승되었던 것으로 보인다.⁸³⁾

중국 역사의 주요 인물들과 조선을 지리적으로 관련시키고, 문학작품 속의 인물을 조선의 역사인물로 비정하는 이러한 견해들이 왜 18세기에 형성되었으며 이것이 무슨 의미를 지니는지에 대한 답변을 마련하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중국 역사 인물의 고향을 조선으로 설정하는 것과 중국 소설의 인물을 우리의 역사인물과 동일시하는 것은 같은 현상이 아니다. 한자문화의 내면화에 따른 중국문화와 자국 역사의 동일시 현상, 병자호란 이후 淸과 관련된 수모감과 우월감의 미묘한 혼종 현상, 그리고 보편화된 한자문화의 프리

78) 이덕무, 『청장관전서』 권 62, 「西海旅言」.

79) 성해응, 『經齋全集續集』 冊 17, 文 3三, 「四郡志序」.

80) 이익, 『성호사설』 권 17의 「人事門, 虬髯客」과 권 21의 「經史門, 渤海」.

81) 유득공은 1778년 「二十一都懷古詩」를 지었고, 이후 각 시들과 관련된 역사를 고증하여 1792년에 주석을 달았다. 이 책은 1887년 목판으로 간행되었다. 이 판본의 원문과 주석은 황순구 역주, 『二十一都懷古詩』(명보출판사, 1980) 참조.

82) 『野乘』 제 21책, 「唐文士作虬髯客傳」. (『野乘』은 한국학중앙연구원에 소장되어 있으며, 원문은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koreanhistory.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83) 이와 관련하여 상당히 많은 양의 전설이 채록되어 있는데, 그중 몇몇 인물 전설에 대해서는 연구 결과가 학계에 보고되어 있다. 이러한 인물 전설의 형성과 전승에 대한 체계적인 고찰이 필요하다.

즘을 거치며 생긴 특수한 민족적 자의식의 굴절 현상 등이 현재 내세울 수 있는 가설이다. 다만 여기서 연개소문 이야기로 국한시켜 잠정 결론을 내린다면, 이 시기 일부 지식인들은 연개소문을 호의적인 동일자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오랫동안 중국의 기록에 의해서 형성된 도덕적 혐의와 타자 인식이 어느 정도 극복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규염객전」은 늦어도 10세 초에는 지어졌고, 「규염객전」이 수록된 『태평광기』는 13세기 이전에 이 땅에 들어왔다. 수용된 지 500년이 지나서야 「규염객전」이 새롭게 조명된 이유로는 역사 환경의 변화에 따른 인식의 전환을 내세울 수밖에 없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사례는 이견창(1852~1898)이 1887년 지은 시 한 수이다.

개소문 떠나간 지 어느덧 천년인데	蓋蘇文去已千年
산꼭대기 음마천에 쇠말뚝을 박았구나	鐵壓山頂飲馬泉
봉씨의 자손들은 모두가 적막하여	奉氏兒孫俱寂寞
용지의 물은 말라 점점 밭이 되는도다	龍池水涸漸爲田 ⁸⁴⁾

강화도의 여러 역사적 사례를 소재로 지은 절구 연작 중의 하나이다. 앞서 말한 바대로 우리나라에서 연개소문에 대한 1차 기록과 전승은 거의 생산되지 못했는데, 유일하게 살아남은 것이 강화 「고려산의 연개소문 전설」이다. 1932년에 간행된 地誌에 따르면, 연개소문은 고려산에서 나고 자랐으며, 거기에는 馳馬臺와 飲馬井(泉)이 있는데 몽골군이 쇠말뚝을 박아놓았다고 한다.⁸⁵⁾ 연개소문 전승이 1690년대에 저술된 이형상(1653~1733)의 『강도지』에는 실리지 않았다가 1930년대 망국의 상황에서 새롭게 발견된 것은, 연개소문의 역사적 발견과 관

84) 이견창, 『寧齋集』 권 6, 「古次雜絶」其 3. 시 아래 “고려산 꼭대기에 개소문의 飲馬井이 있는데 왜인들이 쇠말뚝으로 눌러 놓았다. 그 아래 봉씨 집안의 용지가 있다(高麗山頂有蓋蘇文飲馬井, 而倭人以鐵釘壓之. 其下有奉家龍池).”고 부기하였다.

85) 朴憲用, 『續修增補 江都誌』 제 1편 제 1장 沿革 제 2절 山岳의 ‘高麗山’조와 제 6장 名所, 古蹟 제 2절의 ‘高麗山五井’ 및 ‘蓋蘇文舊基’에 관련 전승이 실려 있다.

련하여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이견창의 시는 지식인들의 관심 밖에 놓여있던 연개소문이, 19세기 후반 국난이 고조되는 시기 전통 한학자의 관심권으로 들어왔음을 잘 보여주는 자료이다. 이견창은 음마정에 말뚝을 박은 이는 왜인이라 하여 『강도지』의 그것과 차이를 보이지만, 외세 강박의 상황과 관련지어 연개소문을 환기했다는 점에서 지시 의미는 다르지 않다.

이견창이 위 시를 짓고 21년 뒤인 1908년 신채호는 『대한매일신보』에 『讀史新論』을 연재하면서, 연개소문을 동국 역사 4천년 제1의 영웅이라 치켜세웠다.⁸⁶⁾ 3년 뒤인 1911년 박은식은, 독립자주의 자격과 대외경쟁의 담력은 4천년 역사에서 연개소문에게 필적할 자 없다고 높이었다.⁸⁷⁾ 국권 상실의 직전 직후에야 연개소문은 다급하게 민족의 영웅으로 역사에서 불려나온 것이다. 이 과정에서 중화적 시선과 유교적 죄안이 일거에 제거되고, 연개소문에게는 민족주의적 영웅상이 투사되었다.⁸⁸⁾ 그는 사후 1300여 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한국사의 한 주역으로 복원된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국권상실기 내내 지속되었으며, 많은 부분은 오늘에까지 이르고 있다. 본 절에서 살펴본 바, 윤근수에서 이견창에 이르는 인식의 편린들은 모두 이를 위한 준비작용 즉 前史에 해당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국 전승과 기록의 부재로, 박은식과 신채호는 중국의 자료에 의거하여 연개소문의 일생과 역사를 재구할 수밖에 없었으며, 그 과정에서 중국의 소설과 설화, 그리고 아직까지도 소재가 알려지지 않은 문헌의 기록 등이 대거 역사 영역으로 편입되었다.

86) 단재신채호전집편집위원회, 『단재신채호전집』 제 3권,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7, 35쪽.

87) 박은식, 앞의 글, 「결론」.

88) 박은식과 신채호의 연개소문 인식에 대해서는 유영옥, 「백암과 단재의 연개소문 인식」, 『역사와 경계』 71호, 부산경남사학회, 2009 참조.

7. 연개소문 전승의 반성적 검토

이제까지 연개소문 이야기의 형성과 전승의 경로, 그리고 그에 따른 연개소문 형상의 변천을 검토하였다. 이는 연개소문의 역사적 실상을 재현하고자 함이 아니라, 연개소문과 오늘날 우리 사이에 놓여있는 인식의 변천을 살펴본 것이다. 연개소문 이야기는 중국을 중심으로 형성되고 전승되었는데, 그 경로는 크게 역사기록·야담(야사)·소설·설화로 나눌 수 있다. 이들 경로는 각기 다른 담당층과 세계관 위에 기반하고 있다. 나열 순서에 따라 기층 민중들의 참여와 상상력의 개입 폭이 넓어지는데, 전승 경로에 따른 담당층과 연개소문의 형상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역사기록에서 연개소문은 자기 군주를 시해하고 권력을 탈취하고, 당 중심의 세계 질서를 거부하여 전쟁을 초래하고 백성들을 도탄에 빠트린 도덕적 파탄자로 그려진다. 여기에는 중국 지배층 중심의 중화주의와 유교적 도덕론이 작용하고 있다. 한편 연개소문은 비범한 威儀와 강렬한 武勇을 지닌 인물로 기술되었다. 이러한 기술과 더불어 기록과 실상 사이의 모순은 다채로운 이야기 탄생의 모태가 되었다. 역사기록은 당태종의 업적을 부각시키기 위해 전쟁의 실상을 많은 부분 은폐하였는데, 권력의 금기가 해제된 뒤 당태종의 패배에 대한 진술들이 단편적으로 제기되었다. 이는 주로 비공식 야담이나 개인 차원에서 이루어졌는데, 김부식은 일부 그러한 언급을 받아들였다.

소설은 세 편을 표본으로 검토하였는데, 작가의 지향과 독자층에 따라 내용상의 편폭이 넓게 벌어진다. 역사를 내세운 『唐書志傳通俗演義』는 역사 기록을 중심으로 서사를 구성하였으며, 연개소문은 전쟁을 배후에서 지휘하는 고구려의 실권자로 등장한다. 『薛仁貴征遼事略』은 설인귀가 무명 소졸에서 국가 영웅으로 거듭나는 일생을 그린 것인데, 연개소문은 당태종을 조롱하고 위협하지만 결국은 설인귀에 의해 초라하게 죽는 것으로 그려진다. 설인귀의 영웅적 면모를 강조하는 과정에서 연개소문이 일방적으로 희생된 경우이다. 『說唐後傳』에서 연개소문은 강력한 침략자로 등장하여 당태종을 한껏 조롱하며, 설인귀에 의해 죽기

는 하지만 그 위상과 비중은 설인귀와 대등하다. 『설인귀정요사략』과 『설당후전』에서는 산둥반도 일대가 고구려 영역이거나 연개소문의 침공을 받는 지역으로 설정되어 있다.

설화는 그 분포 지역이 요동 일대와 산둥반도는 물론이고 江蘇省 일대까지 뻗어 있다. 내용에 있어서도 기록이 담아내지 못한 전쟁의 실상을 암시하는 것에서, 연개소문이 중국의 내지까지 공격하여 당태종을 곤경에 몰아넣는 것까지 그 스펙트럼이 매우 넓다. 후자의 경우 연개소문의 형상은 침공자의 면모가 짙어졌다. 설화의 내용은 소설의 그것과 많은 부분을 공유하는데, 연개소문의 활동 범위와 침략자의 면모는 소설의 그것보다 넓어지고 강화된다. 이는 설화가 지니는 비규범성과 유동성의 결과로 보인다. 산동성과 강소성을 배경으로 하는 설화의 전승 이유와 그 사실성 여부에 대해서는 한층 정밀한 천착이 요구된다.

연개소문 이야기는 철저히 중국을 중심으로 기록되고 전승되었다. 고구려를 정복한 신라나, 역사적으로 고구려의 후속 국가인 고려와 조선은 연개소문에 대한 독자적인 기록을 남기지 못했다. 민간의 전승도 기록으로 옮겨진 것이 없다. 이는 연개소문 전승에 있어 우리가 철저히 소외되어 있었음을 의미한다. 연개소문은 임진왜란을 전후한 시기부터 차츰 역사의 동일자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20세기 들어서야 비로소 한국사의 주역으로 위상이 격상되었다. 여기에는 대타적 민족 자의식의 형성과 강화가 주된 내적 동인으로 작용했다. 하지만 오랫동안 기록과 전승에서 소외되어 있었기 때문에, 연개소문에 대한 연구와 표현 일체는 중국의 자료에 대부분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 그 과정에서 설화와 소설의 내용들이 사료로 활용되었다.

현재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연개소문의 형상은 대개 이 다섯 경로를 통해 빚어진 것으로, 여기에는 한국의 인식과 중국의 인식, 고대의 인식과 근대의 인식, 그리고 역사와 문학과 설화의 인식이 복잡하게 뒤섞여 있다. 본고는 연개소문의 형상에 실타래처럼 복잡하게 얽혀있는 역사적 인연을 풀기 위해, 8세기부터 20세기 초에 이르는 시기 연개소문 이야기의 형성과 전승 경로를 정리해본 것이다. 이 논의는 7세기 중반 고구려의 대당 전쟁을 주도했던 역사인물 연개소문

이, 중국의 여러 층위 기록과 전승에서 어떻게 타자화되었으며, 다시 어떤 과정을 거쳐 한국사의 주역으로 귀환하였는지, 그 과정을 보여준 것이다.

고구려의 역사가 국권 상실과 함께 강력하게 호출된 것처럼, 연개소문이 우리 역사의 주역으로 귀환한 지는 기실 100년이 채 되지 못한다. 하지만 그렇게 돌아온 연개소문은 오랜 세월 중국인들의 다채로운 전승 속에서 그들의 시선에 물들은 모습이다. 중국인의 관점에 의해 형상화된,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중국화된 인물의 귀환인 셈이다. 이는 오늘날에도 크게 다르지 않으니, 우리는 연개소문을 찾기 위해서는 중국의 문헌과 현장을 탐문해야 한다. 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

■ 참고문헌

- 단체신체호전집편찬위원회, 『단체신체호전집』,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7.
- 백암박은식전집편찬위원회, 『白巖朴殷植全集』, 동방미디어, 2002.
- 朴憲用, 『續修增補 江都誌』·이건창, 『寧齋集』, 아세아문화사.
- 『野乘』(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koreanhistory.or.kr/])
- 유득공 / 황순구 역주, 『二十一部懷古詩』, 명보출판사, 1980.
- 이익 / 민족문화추진회, 『국역 성호사설』·성해응, 『經濟全集續集』
- 이덕무 / 민족문화추진회, 『국역 청장관전서』·신광수, 『石北集』·이색, 『牧隱集』
- 김정중 / 민족문화추진회, 『국역 기유록』·김창업 / 민족문화추진회, 『국역 연행일기』
- 이수광, 『지봉유설』·허균 / 최강현 옮김, 『乙丙朝天錄』, 국립중앙도서관, 2007.
- 조위한, 『玄谷集』·윤근수, 『月汀集』·이덕수, 『西堂私載』·정몽주, 『圃隱集』
- 하륜, 『浩亭集』·최부, 『錦南集』
- 『盛京通志』, 『蓋平縣志』, 『신당서』, 『구당서』, 『자치통감』
- 신채호 / 진경환 역주, 『朝鮮上古史』, 인물연구소, 1982.
- 『說唐演義後傳』(古本小說集成 149, 150책, 中國 上海 : 上海古籍, 1994.
- 『說唐全傳』, 中國 長沙 : 岳麓書社, 1993.
- 『唐書志傳通俗演義』, ‘古本小說叢刊 제 4집의 1,2책, 中國 中華書局, 1989.
- 『薛仁貴征遼事略』, ‘古本小說集成’ 제 426책, 中國 上海 : 上海古籍, 1994.
- 김동진, 『내러티브적 역사서술의 흐름』, 『靑藍史學 7』, 청람사학회, 2003.
- 김운찬, 『역사와 허구 사이 : 에코의 역사 읽기』, 『이탈리아어문학』 14, 한국이탈리아어문학회, 2004.
- 루사오핑 / 조미원 외 옮김, 『역사에서 허구로』, 길, 2001.
- 박재연 역주, 『薛仁貴征遼事略』(『중국소설연구회보』 8~11회, 1991.11 ~1992.9 연재.
- 박재연, 『薛仁貴征遼事略 小考』, 『중국학연구』 1, 한국외국어대학교 중국학연구소, 1984.
- 방향숙, 『7세기 중엽 唐太宗의 對高句麗戰 전략 수립과정』, 『중국고중세사연구』, 중국고중세사학회, 2008.
- 신경섭, 『俗文學中薛仁貴 蓋蘇文故事的由來及演變』, 『아시아문화연구』 2, 경원대 아시아문화연구소, 1997.
- 신경섭, 『연개소문 인물 형상 연구-중국 고사의 유래와 변천을 중심으로』, 『동양정치사상사』 제 7권 1호, 한국동양정치사상사학회, 2008.
- 유영옥, 『백암과 단재의 연개소문 인식』, 『역사와 경계』, 부산경남사학회, 2009.
- 이기동, 『7세기 동아시아 국제사회와 신라의 삼국통일 전략』, 『신라문화』 24, 동국대 신라문화연구소, 2004).

- 이도흙, 『기억, 흔적 그리고 기호 - 역사현실의 기억과 흔적의 텍스트화 및 해석』, 『기호학연구』 19, 한국기호학회, 2006.
- 이승수, 『燕行路上的 공간 탐색, 鳳凰山城 -安市城說과 관련하여』, 『정신문화연구』 103, 한국학중앙연구원, 2006.6.
- 이승수, 『遼東 지역 高句麗 관련 설화의 문헌 및 현장 조사 연구』, 『고구려의 등장과 그 주변』, 동북아역사재단, 2009.
- 이승수, 『조선후기 燕行 체험과 故土 인식』, 『동방학지』 129, 연세대 국학연구원, 2003.
- 이흥직, 『연개소문에 대한 약간의 存疑』, 『한국 고대사의 연구』, 신구문화사, 1987.
- 임기환, 『6,7세기 高句麗 정치세력의 동향』, 『한국고대사연구』 5, 한국고대사학회, 1992.
- 최미진, 『隋唐嘉話의 文獻의 價値 및 校釋』,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8.
- 하상복, 『닥터로우의 역사와 문학의 경계 공간』, 『현대영미소설』 11권 2호, 한국현대영미소설학회, 2004.
- 한명기, 『조선시대 韓中 지식인의 고구려 인식 - 고구려의 '靉盛'과 조선의 고구려 계승 인식을 중심으로』, 『한국문화』 38, 서울대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2006.12.

http://www.wangchao.net.cn/bbsdetail_618016.html

愛自由旅游网(http://www.izy.cn/travel_guide/650/0_0_4935_1_0_0.html)

連雲港文化網(<http://www.lygwh.gov.cn/show.asp?id=1995>)

蓬萊歷史文化研究會/賀小倩 편집, 『蓬萊民間流傳之唐二主征東史事正訛』(膠東在綫홈페이지/

<http://www.jiaodong.net/wenhua/system/2007/02/08/000117605.shtml>, 2007년 4월 3일)

蓬萊人 홈페이지 (<http://www.penglaircn.com/Article/lsw/200810/15.html>, 2008년 10월 24일)

靑島市 卽墨縣 홈페이지/

(<http://www.jimo.gov.cn/jmwenhua/ju/news/200711811155787097.htm?typeid=847&videos=>)

『天津日報』, 2007년 2월 13일자 (http://www.tj.gov.cn/tjgk/20070213103047_134.htm)

『天津日報』, 2004년 12월 20일 자(<http://past.tianjindaily.com.cn/docroot/200412/20/rb02/20100302.htm>)

Formation and Transmission of Yeon Gaesomun(淵蓋蘇文) Story

— Related to Yeon Gaesomun Figure —

Lee Seung-su*

While Yeon Gaesomun was the historical figure who led the international situations in East Asia as the most prominent figure in Goguryeo in the middle of the 7th century, his whereabouts are very ambiguous in the historical records. It is because the records on Yeon Gaesomun were completely manipulated by Tang dynasty and Song dynasty following Tang, which were enemies against Goguryeo. Such records omitted most of Yeon Gaesomun's life and couldn't help being distorted by the historical view of such enemies. Yeon Gaesomun is described in an atypical form at present. Thus, our understanding on him is frequently confused.

Such inconsistent description on Yeon Gaesomun is caused by the fact that information related to Yeon Gaesomun has been distributed to the exclusion of formation and transmission of story about Yeon Gaesomun. This study examined the formation and transmission of Yeon Gaesomun story in 5 aspects, historical records of China based on Sinocentrism, doubt and controversy on historical records, fictions, tales and interest on the intellectuals during Joseon period. The forms of Yeon Gaesomun that we currently see

*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Hanyang University

were mostly created by five aspects above. Recognition of Korea and China, ancient and modern recognition, and recognition in history, literature and tales are complicatedly mixed in the stories on Yeon Gaesomun.

This study summarized the formation and transmission of Yeon Gaesomun story from the 8th century to early 20th century in order to unravel the complicated historical relationship in Yeon Gaesomun story. The discussion on the formation and transmission of Yeon Gaesomun story described the deployment of stories about how Yeon Gaesomun, the historical character leading the war of Goguryeo against Tang dynasty in the middle of 7th century, was otherized in various kinds of records and transmission in China and by what processes he could be returned as the leader in the Korean history.

Key Words: Yeon Gaesomun, Xue Rengui(薛仁貴), Tang T'ai-tsung(唐太宗), Sinocentrism-based Historical Records, Chinese fictions with appearance of Yeon Gaesomun, Chinese tales with appearance of Yeon Gaesomun